

## WEBVTT

00:00:10.238 --> 00:00:12.345

우리 이번에는 13강입니다.

00:00:12.445 --> 00:00:14.631

문장의 짜임새 부분  
들어가도록 하죠.

00:00:14.731 --> 00:00:19.097

사실 이제 문법 쪽에서 우리가 통사 쪽,  
형태 쪽 다 합쳤을 때

00:00:19.197 --> 00:00:22.582

최종 보스가 될 수 있는 부분이  
이 문장의 짜임새 부분이라고

00:00:22.682 --> 00:00:23.794

생각이 들어요.

00:00:23.894 --> 00:00:26.666

그래서 이렇게 문장의 짜임새를  
정확하게 판단하는 문제를

00:00:26.766 --> 00:00:28.381

요구하는 게 제일  
어려운 수준의 문제.

00:00:28.481 --> 00:00:32.573

그래서 이것을 잘 해결하고  
나면 이제 14강부터는

00:00:32.673 --> 00:00:34.529

또 독립적인 내용이  
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.

00:00:34.629 --> 00:00:37.649

그래서 문법 요소라고 해서  
우리가 피동이라든지 사동,

00:00:37.749 --> 00:00:41.024

시제 표현이라든지 부정  
표현이라든지 높임 표현이라든지

00:00:41.124 --> 00:00:43.518

인용 표현이라든지 이런  
걸 따질 거거든요.

00:00:43.618 --> 00:00:46.641

그래서 일단 여기까지 딱  
공부해 주시면 지금까지가

00:00:46.741 --> 00:00:49.580

다 관계성 있는 내용, 연결이  
됐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.

00:00:49.680 --> 00:00:53.317

우리 지난 시간에 문장  
성분을 공부해봤어요.

00:00:53.417 --> 00:00:55.858  
문장 성분은 총 7가지가 있었죠.

00:00:55.958 --> 00:00:58.761  
그래서 그 7가지들이  
이제 쪽 이어질 텐데.

00:00:58.861 --> 00:01:02.510  
문장의 짜임새를 따질 때는  
뭐의 개념만 잘 보시면 되냐면

00:01:02.610 --> 00:01:05.961  
절이라는 요소만 잘  
보면 됩니다, 절.

00:01:06.061 --> 00:01:10.167  
이 절이라고 하는 것은  
문장 성분 중에서

00:01:10.267 --> 00:01:14.430  
뭐를 실질적으로 보는 거냐면  
주어랑 서술어만 보면 돼요.

00:01:14.530 --> 00:01:18.841  
그래서 이 절이라고  
하는 것은 주어 하나와

00:01:18.941 --> 00:01:26.364  
그다음에 서술어 하나로  
이루어져 있는.

00:01:33.462 --> 00:01:35.480  
문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.

00:01:35.580 --> 00:01:39.619  
이중에서 중간에 어떤  
서술어가 자릿수가 더 있어서

00:01:39.719 --> 00:01:41.815  
목적어나 또는 부사어를  
요구할 수도 있어요.

00:01:41.915 --> 00:01:45.307  
그런데 그런 거 신경 쓸 필요  
없이 그냥 주어와 서술어가

00:01:45.407 --> 00:01:48.403  
하나씩 있는 상태만 절이라고  
묶어주시면 됩니다.

00:01:48.503 --> 00:01:50.895  
그러니까 완벽하게 문장을  
이루지 못할지라도

00:01:50.995 --> 00:01:54.041  
우리는 절이라고 봐준다는 건데.

00:01:54.141 --> 00:01:58.468  
이 절의 쓰임이 어떠한가에  
따라서 이 문장을 겹문장이냐

00:01:58.568 --> 00:02:00.182  
홀문장이냐 나눌 수 있습니다.

00:02:00.282 --> 00:02:08.752  
먼저 문장은 이제 홀문장은  
절이 하나인 걸 얘기해요.

00:02:08.852 --> 00:02:12.502  
절이 한 개.

00:02:12.602 --> 00:02:16.807  
그 얘기는 문장에 주어랑 서술어랑  
하나씩밖에 안 보인다는 얘기입니다.

00:02:16.907 --> 00:02:20.823  
그다음 접문장이 있습니다.

00:02:20.923 --> 00:02:29.119  
그럼 접문장은 절이  
두 개 이상이라는 얘기죠.

00:02:29.219 --> 00:02:31.948  
절이 두 개 이상이라는 얘기예요.

00:02:32.048 --> 00:02:35.590  
즉, 주어 서술어, 주어 서술어  
이런 것들이 만들어진다는 얘기인데.

00:02:35.690 --> 00:02:38.968  
이 접문장을 크게  
두 가지로 나눈다는 겁니다.

00:02:39.068 --> 00:02:42.601  
우리가 이제 홀문장을 공부하는  
게 아니라 접문장 위주로

00:02:42.701 --> 00:02:43.765  
공부를 하게 될 거거든요.

00:02:43.865 --> 00:02:50.081  
접문장 첫 번째는 안은 문장이라는  
표현을 씁니다, 안은 문장.

00:02:50.181 --> 00:02:58.407  
사실 어떤 문장이 안았다는 얘기는  
안긴 것도 존재할 수밖에 없어요.

00:02:58.507 --> 00:03:00.125  
기본적 구조는 이러합니다.

00:03:00.225 --> 00:03:07.358  
주어랑 다음 서술어랑 이루어져  
있는 하나의 절이 있다.

00:03:07.458 --> 00:03:14.086  
그런데 그 안에 새로운 주어랑  
서술어가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.

00:03:14.186 --> 00:03:17.641  
그래서 이 새로운 주어,  
서술어라고 하는 이 절이

00:03:17.741 --> 00:03:20.972

전체 문장 안에서 안겨  
있는 상태가 되는 거죠.

00:03:21.072 --> 00:03:26.439

그래서 용어를 따지게  
되면 이걸 안긴 문장.

00:03:26.539 --> 00:03:30.929

그리고 바깥에 있는 이 부분을  
우리는 뭐라고 부른다?

00:03:31.029 --> 00:03:34.540

안은 문장이라고  
표현하면 되는 거예요.

00:03:34.640 --> 00:03:38.992

그런데 이걸 두 가지 다  
용어를 쓸 수 없으니까

00:03:39.092 --> 00:03:41.706

그냥 기본적으로는 안긴 문장을  
기본형으로 잡지 않고

00:03:41.806 --> 00:03:43.794

안은 문장이라는 용어를  
쓰게 되는 겁니다.

00:03:43.894 --> 00:03:46.422

그래서 주어, 서술어로  
이루어져 있는 절 안에

00:03:46.522 --> 00:03:48.811

어떤 주어, 서술어가  
안겨 있는 상태.

00:03:48.911 --> 00:03:51.135

그걸 안은 문장이라는 말을 쓰고요.

00:03:51.235 --> 00:03:58.901

다음 이어진 문장이라는 것은  
선행절, 후행절 이런 표현을

00:03:59.001 --> 00:04:05.508

쓸 수 있는데 주어와 서술어가  
연속적으로 나와 있고,

00:04:05.608 --> 00:04:08.291

다른 주어, 서술어가  
끼지 않은 상태로요.

00:04:08.391 --> 00:04:10.718

주어, 서술어가 이렇게  
연속적으로 나와 있고.

00:04:10.818 --> 00:04:14.891

그리고 뒤에서 주어, 서술어가  
서로 연결되는 주어, 서술어가

00:04:14.991 --> 00:04:16.354

뒤에 나오는 거예요.

00:04:16.454 --> 00:04:19.855

그래서 이 사이에는  
첨표를 써주기도 하고,

00:04:19.955 --> 00:04:21.795

안 써줘도 상관없고요.

00:04:21.895 --> 00:04:26.012

이런 형태는 선행절과 후행절.

00:04:30.755 --> 00:04:33.295

이어져 있다 볼 수 있죠.

00:04:33.395 --> 00:04:35.802

그래서 이걸 이어진 문장이라는  
표현을 쓰게 됩니다.

00:04:35.902 --> 00:04:38.279

기본적 구조는 이렇다고  
말씀드렸고요.

00:04:38.379 --> 00:04:43.137

그러면 이 안은 문장 안에  
이놈의 기능이 무엇인가.

00:04:43.237 --> 00:04:45.916

이놈이 어떻게 안겨 있느냐에  
따라서 나눠주는데.

00:04:46.016 --> 00:04:51.356

그 나눠주는 것이  
5가지가 되겠습니다.

00:04:57.043 --> 00:05:04.998

그래서 안은 문장은 첫 번째,  
명사절을 안은 문장.

00:05:05.098 --> 00:05:09.814

두 번째, 관형절을 안은 문장.

00:05:09.914 --> 00:05:13.743

세 번째, 부사절을 안은 문장.

00:05:13.843 --> 00:05:19.413

네 번째, 서술절을 안은 문장.

00:05:19.513 --> 00:05:26.028

다섯 번째, 인용절을 안은  
문장이라는 말을 쓰게 됩니다.

00:05:26.128 --> 00:05:29.014

각각 보면 여기에 있는  
이 안겨 있는 부분이

00:05:29.114 --> 00:05:32.223

명사처럼 쓰였으면  
명사절 안은 문장,

00:05:32.323 --> 00:05:35.874

관형어의 기능을 하고 있으면  
관형절 안은 문장,

00:05:35.974 --> 00:05:39.557  
부사어의 기능을 하고 있으면  
부사절 안은 문장,

00:05:39.657 --> 00:05:42.260  
서술어 기능을 하고 있으면  
서술절 안은 문장

00:05:42.360 --> 00:05:46.344  
그리고 누군가의 말이나 글을 인용한  
거면 인용절을 안은 문장이라고

00:05:46.444 --> 00:05:48.175  
말을 쓰는 거거든요.

00:05:48.275 --> 00:05:50.076  
하나하나 따져보도록 하죠.

00:05:50.176 --> 00:05:53.039  
먼저 명사절 안은 문장입니다.

00:05:53.139 --> 00:05:55.724  
명사절 안은 문장.

00:05:55.824 --> 00:05:59.284  
문장의 짜임새를 따질 때는  
뭐만 따지면 된다고 했습니까?

00:05:59.384 --> 00:06:00.910  
주어, 서술어.

00:06:01.010 --> 00:06:03.759  
단, 주어를 먼저 찾을 거예요,  
서술어를 먼저 찾을 거예요?

00:06:03.859 --> 00:06:05.296  
항상 서술어.

00:06:05.396 --> 00:06:08.549  
그리고 맨 뒤에 있는 것부터  
이렇게 찾아 올라오시면 됩니다.

00:06:08.649 --> 00:06:11.433  
틀림없다, 서술어죠.

00:06:11.533 --> 00:06:15.136  
뭐가 틀림없죠?  
할머니가 틀림없어요.

00:06:15.236 --> 00:06:17.601  
할머니가 틀림없어요?

00:06:17.701 --> 00:06:21.583  
이거 아니, 뭐가  
틀림없는 것 같은데?

00:06:21.683 --> 00:06:23.702  
무엇이 틀림없다 같은데?

00:06:23.802 --> 00:06:27.356

그러면 또 다른  
서술어가 있었을까요?

00:06:27.456 --> 00:06:30.233

이놈이 서술어였던 놈이에요.

00:06:30.333 --> 00:06:31.738

이걸 잘 보셔야 됩니다.

00:06:31.838 --> 00:06:34.891

우리가 문장의 짜임새를 따질  
때는 이걸 잘 보셔야 돼요.

00:06:34.991 --> 00:06:37.437

서술어였던 놈으로 취급한 겁니다.

00:06:37.537 --> 00:06:39.601

이거 지금 문장에서는, 잘 보세요.

00:06:39.701 --> 00:06:41.907

이거 지금 주어예요,  
이거 주어예요, 주어.

00:06:42.007 --> 00:06:44.277

잘 보세요, 주어인데.

00:06:44.377 --> 00:06:46.421

왜? 이가 주격 조사잖아요.

00:06:46.521 --> 00:06:48.606

뒤에 되다나 아니다가  
나온 게 아니니까

00:06:48.706 --> 00:06:50.471

얘는 지금 주어로  
존재하는 거거든요.

00:06:50.571 --> 00:06:52.688

그런데 왜 제가 서술어라고  
썼는지 아세요?

00:06:52.788 --> 00:06:55.186

원래는 이거 서술어였어요.

00:06:55.286 --> 00:06:59.850

어떤 문장이 이 안에 들어왔습니까?

00:07:04.431 --> 00:07:06.082

이 문장.

00:07:06.182 --> 00:07:07.610

저 할머니는 부자이다.

00:07:07.710 --> 00:07:10.954

저 할머니는 부자이다라고  
하는 문장이 있었죠.

00:07:11.054 --> 00:07:14.920

그럼 여기 저 할머니는 부자이다라고

하는 문장에서 서술어가 뭐였어요?

00:07:15.020 --> 00:07:17.557

바로 부자이다가 서술어고,  
뭐가 주어입니까?

00:07:17.657 --> 00:07:21.019

저 할머니는이 주어가  
되는 거잖아요.

00:07:21.119 --> 00:07:24.193

그러면 애는 주어 하나, 서술어  
하나로 이루어져 있는 절인데

00:07:24.293 --> 00:07:26.902

이 절이 다가, 잘 보세요.

00:07:27.002 --> 00:07:29.335

다가 형태를 바꿨습니다.

00:07:29.435 --> 00:07:32.799

뭐로 바꿨죠? ㅁ으로 바꿨어요.

00:07:32.899 --> 00:07:35.589

이 ㅁ은 어떠한 ㅁ입니까?

00:07:35.689 --> 00:07:41.922

명사를 만들 수 있는, 명사처럼  
기능하게 하는 명사형 전성어미였죠.

00:07:42.022 --> 00:07:45.533

따라서 저 할머니는  
부자이다라는 문장이

00:07:45.633 --> 00:07:48.372

그것이 틀림없다라고 하는  
문장 안에 들어왔어요.

00:07:48.472 --> 00:07:50.488

뭐라고요?

00:07:50.588 --> 00:07:53.102

저 할머니는 부자이다라고  
하는 그 문장이

00:07:53.202 --> 00:07:56.197

그것이 틀림없다라고 하는  
문장 안에 들어왔습니다.

00:07:56.297 --> 00:07:59.270

따라서 우리는 지금  
판단할 때 이 부분을

00:07:59.370 --> 00:08:02.849

하나의 절로 볼 수 있었다는 거죠.

00:08:02.949 --> 00:08:06.267

주어+서술어.

00:08:06.367 --> 00:08:10.142

저 할머니는 부자이다라고 하는

그 문장이 형태를 바꿔서

00:08:10.242 --> 00:08:14.662  
부자이다 대신에 부자임을 취했고.

00:08:14.762 --> 00:08:18.176  
이 임을 취하면서 명사처럼  
쓰였다는 얘기입니다.

00:08:18.276 --> 00:08:20.767  
그럼 명사처럼 쓰였으니까  
뒤에 뭐랑 붙을 수 있죠?

00:08:20.867 --> 00:08:24.436  
조사랑 붙을 수 있고, 이때  
이가 바로 무슨 격 조사?

00:08:24.536 --> 00:08:25.642  
주격 조사가 됩니다.

00:08:25.742 --> 00:08:29.783  
따라서 틀림없다라고 하는  
서술어의 주어가 뭐인 거다?

00:08:29.883 --> 00:08:34.699  
여기 나와 있는 이놈이 되는 거죠.

00:08:34.799 --> 00:08:37.839  
절이 주어 역할하고 있는 거죠.

00:08:37.939 --> 00:08:42.020  
만약에 저 할머니는 부자이다가  
틀림없다, 말 안 되죠.

00:08:42.120 --> 00:08:45.297  
저 할머니는 부자인  
틀림없다, 안 되죠.

00:08:45.397 --> 00:08:49.122  
저 할머니는 부자이게  
틀림없다, 안 됩니다.

00:08:49.222 --> 00:08:53.573  
즉, 이렇게 조사가 붙으려면  
명사처럼 시늉은 해줘야 될 거예요.

00:08:53.673 --> 00:08:57.072  
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  
명사절이 전체 문장 안에

00:08:57.172 --> 00:08:59.335  
안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.

00:08:59.435 --> 00:09:01.778  
밑에 문장 볼까요?

00:09:01.878 --> 00:09:04.098  
서술어 뭐 나왔어요? 명심해라.

00:09:04.198 --> 00:09:07.776  
주어는 뭘까요?

00:09:07.876 --> 00:09:09.776  
우리네이 주어입니까?

00:09:09.876 --> 00:09:12.013  
우리는 명심해라, 아닌 것 같은데?

00:09:12.113 --> 00:09:14.632  
너는 정도가 되겠쥬, 맥락상.

00:09:14.732 --> 00:09:18.444  
그래서 서술어부터 올라와서  
거기에 어울리는 주어가 없으면

00:09:18.544 --> 00:09:20.367  
만들면 돼요, 여러분이.

00:09:20.467 --> 00:09:22.442  
가주어를 챙겨주셔야 됩니다.

00:09:22.542 --> 00:09:23.795  
너는 명심해라.

00:09:23.895 --> 00:09:26.773  
그럼 여기에서 너는을 넣어보쥬.

00:09:26.873 --> 00:09:29.884  
너는, 애가 그럼 주어가  
되겠네요, 그렇쥬?

00:09:29.984 --> 00:09:32.012  
너는 명심해라 이렇게 됐습니다.

00:09:32.112 --> 00:09:33.796  
안긴 문장 볼까요?

00:09:33.896 --> 00:09:36.162  
서술어, 우리는 한 팀이다.

00:09:36.262 --> 00:09:38.079  
우리는 한 팀이다.

00:09:38.179 --> 00:09:42.151  
이다, 이놈 지금  
서술어였던 놈이었쥬.

00:09:42.251 --> 00:09:45.676  
그리고 이 서술어였던  
놈의 주어가 뭐였다?

00:09:45.776 --> 00:09:48.220  
우리는 한 팀이다, 우리는  
주어쥬, 우리는 주어.

00:09:48.320 --> 00:09:53.158  
따라서 우리는 한 팀임.

00:09:53.258 --> 00:09:57.676  
한 팀이다에서 한 팀임으로 바뀔  
때 역시나 ㅁ이 필요했어요.

00:09:57.776 --> 00:09:59.790  
명사형 전성어미가 필요합니다.

00:09:59.890 --> 00:10:01.575  
그걸 명심해라.

00:10:01.675 --> 00:10:05.282  
따라서 주어, 서술어  
바깥에 있는 절 안에

00:10:05.382 --> 00:10:10.933  
주어, 서술어로 안겨 있는  
형태의 명사절이 되는 거죠.

00:10:11.033 --> 00:10:18.382  
그런데 이놈은 지금 뭐의  
기능을 하고 있을까요?

00:10:18.482 --> 00:10:20.080  
이놈은 뭐의 기능을 하고 있죠?

00:10:20.180 --> 00:10:21.408  
위에 거는 주어 기능이었잖아요.

00:10:21.508 --> 00:10:25.042  
밑에 거는 목적어 기능을  
하고 있습니다, 목적어.

00:10:25.142 --> 00:10:26.751  
왜 그렇습니까?

00:10:26.851 --> 00:10:29.627  
여기는 이가 붙어 있으니까 주격  
조사형으로 확인할 수 있는데,

00:10:29.727 --> 00:10:31.435  
여기는 을이잖아요.

00:10:31.535 --> 00:10:35.849  
즉, 목적격 조사가 붙어 있으니까  
목적어임을 알 수 있다는 거죠.

00:10:35.949 --> 00:10:39.859  
나는 식단에서 밀가루를 뺐으로써  
건강해졌다고 했습니다.

00:10:39.959 --> 00:10:42.730  
바깥에 서술어가 뭐예요?  
건강해졌다.

00:10:42.830 --> 00:10:44.472  
누가 건강해졌죠?

00:10:44.572 --> 00:10:45.926  
나는 건강해졌다.

00:10:46.026 --> 00:10:47.884  
이건 지금 주어가 겹으로  
드러나 있네요.

00:10:47.984 --> 00:10:53.665

다음, 서술어였던 놈이 뭐였죠?

00:10:53.765 --> 00:10:57.027

빠다예요, 빠다.

00:10:57.127 --> 00:11:00.975

누가 뻘쪄? 내가 뻘쪄.

00:11:01.075 --> 00:11:04.706

중복 주어입니다, 이러면.

00:11:04.806 --> 00:11:06.771

두 개의 문장이예요.

00:11:06.871 --> 00:11:10.071

나는 건강해졌다라는 문장  
하나랑 나는 식단에서

00:11:10.171 --> 00:11:11.843  
밀가루를 뻘다라는 문장이예요.

00:11:11.943 --> 00:11:15.474

그런데 나는 식단에서  
밀가루를 뻘다라는 문장이

00:11:15.574 --> 00:11:20.282

뻘다가 아니라 뻘으로  
바뀝니다, 그렇죠?

00:11:20.382 --> 00:11:22.922

빠다에서 다 대신에  
ㅁ을 지금 취했죠.

00:11:23.022 --> 00:11:24.609

여기에는 역시 ㅁ을 취합니다.

00:11:24.709 --> 00:11:26.940

그러면서 뭐가 된 거예요?

00:11:27.040 --> 00:11:29.098

명사처럼 쓰이는 거죠.

00:11:29.198 --> 00:11:33.498

즉, 이 주어와 서술어  
부분이 명사처럼 쓰이면서

00:11:33.598 --> 00:11:36.021

뒤에 조사랑 붙게 됐고.

00:11:36.121 --> 00:11:38.583

애는 지금 문장 내에서  
뭐의 기능을 하고 있다?

00:11:38.683 --> 00:11:42.318

부사어의 기능을 하고 있는 거예요.

00:11:42.418 --> 00:11:45.291

왜 부사어의 기능을 하고  
있음을 알 수 있다?

00:11:45.391 --> 00:11:46.864

으로써 때문이죠?

00:11:46.964 --> 00:11:48.076

으로써는 무슨 격 조사?

00:11:48.176 --> 00:11:50.444

부사격 조사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

00:11:50.544 --> 00:11:54.759

따라서 이 밀가루를 뺀으로써까지 해서 건강해졌다는

00:11:54.859 --> 00:11:56.101

꾸며준다고 보는 거죠.

00:11:56.201 --> 00:12:00.298

그래서 밀가루를 뺀으로써는 부사어의 기능을 해주게 되는 거죠.

00:12:00.398 --> 00:12:02.296

다음요.

00:12:02.396 --> 00:12:06.288

여기에 어디까지 부사어나면으로써까지가 부사어라고 보시면 돼요.

00:12:06.388 --> 00:12:08.946

이것도 목적어 임은 을까지가 목적어인 것을 알 수 있는 거고.

00:12:09.046 --> 00:12:11.477

그다음에 주어 임은 이까지 합쳐서 주어인 거죠.

00:12:11.577 --> 00:12:13.266

문장 성분을 따졌을 때는.

00:12:13.366 --> 00:12:17.348

이 빵을 한 입에 먹기는 불가능하다고 했습니다.

00:12:17.448 --> 00:12:20.330

일단 여기부터 빼놓고 위에 세 문장을 보도록 할게요.

00:12:20.430 --> 00:12:23.421

위에 세 문장을 다시 보시면 여기 지금 괄호 친 부분이.

00:12:23.521 --> 00:12:26.685

여러분, 이렇게 안은 문장을 따질 때는 괄호를 쳐주시면 돼요.

00:12:26.785 --> 00:12:29.890

괄호를 쳐주시면 되는데, 그 괄호를 친 부분은

00:12:29.990 --> 00:12:32.813

명사 기능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.

00:12:32.913 --> 00:12:35.821

간단하게 말하면 절인데  
명사 기능을 하고 있다.

00:12:35.921 --> 00:12:42.131

가령 예를 들어서 이 자리에다  
사실이 틀림없다 넣어줄 수 있죠.

00:12:42.231 --> 00:12:43.458

사실이 틀림없다.

00:12:43.558 --> 00:12:46.046

여기에 뭐 넣어준다?  
사실이 틀림없다.

00:12:46.146 --> 00:12:47.994

명사가 오는 자리에요, 이 자리가.

00:12:48.094 --> 00:12:54.928

너는 그거, 너는 규칙을  
명심해라, 그렇죠?

00:12:55.028 --> 00:12:57.746

너는 규칙을 명심해라  
이렇게 쓸 수 있잖아요.

00:12:57.846 --> 00:12:59.706

명사가 올 수 있는 자리라니까요.

00:12:59.806 --> 00:13:01.964

나는 뭐로써 건강해졌다?

00:13:02.064 --> 00:13:06.840

뭐가 좋을까요?  
나는 기도로써 건강해졌다.

00:13:06.940 --> 00:13:09.473

그러니까 뭔가 신적인 걸,  
기도로써 건강해졌다.

00:13:09.573 --> 00:13:11.018

이런 거 나오는 거야.

00:13:11.118 --> 00:13:12.811

명사 하나가 올 자리에요, 사실은.

00:13:12.911 --> 00:13:16.094

그런데 명사가 올 자리에  
명사가 아니라 하나의 문장.

00:13:16.194 --> 00:13:18.356

즉, 절이 이 안에 들어왔어요.

00:13:18.456 --> 00:13:20.413

그런데 그냥 들어올 수 있나?

00:13:20.513 --> 00:13:21.952

그냥 못 들어오죠.

00:13:22.052 --> 00:13:26.112

주어와 서술어가 되어 있을 때 이  
서술어의 형태는 변해야 됩니다.

00:13:26.212 --> 00:13:28.656

뭐처럼? 명사처럼  
변해야 되는 거죠.

00:13:28.756 --> 00:13:32.492

그래서 우리가 명사절을 안은  
문장에서 빨리 찾을 수 있는 건

00:13:32.592 --> 00:13:35.370

명사형 전성어미를 찾는  
방법밖에 없어요.

00:13:35.470 --> 00:13:42.649

그래서 재빨리 좀 쉽게  
가게 되면 서술어였을 놈은

00:13:42.749 --> 00:13:44.223

틀림없다랑 부자이다.

00:13:44.323 --> 00:13:46.073

명심하다와 한 팀이다.

00:13:46.173 --> 00:13:47.929

그다음에 건강해지다와 빠다.

00:13:48.029 --> 00:13:51.338

그다음에 불가능하다, 먹다라는  
놈이 지금 서술어였을 놈들이고.

00:13:51.438 --> 00:13:54.985

실제 서술어는 이놈들이지만,  
얘네는 형태가 변했기 때문에

00:13:55.085 --> 00:13:57.225

명사처럼 지금 쓰이고 있는 거죠.

00:13:57.325 --> 00:13:58.434

뭘 가지고 있다?

00:13:58.534 --> 00:14:03.939

임 口, 임 口, 뺨 口, 떡기,  
형통하기, 그다음 가기.

00:14:04.039 --> 00:14:06.304

지금 어떤 걸 주로  
취한다고 볼 수 있습니까?

00:14:06.404 --> 00:14:08.339

口이나 음이나 그다음에 기예요.

00:14:08.439 --> 00:14:12.549

즉, 안은 문장의 단서를 찾을  
때는 명사절인 걸 찾기 위해서는

00:14:12.649 --> 00:14:18.072

뭘 찾아야 되냐면 명사형  
전성어미가 힌트가 될 거예요.

00:14:22.178 --> 00:14:24.457  
명사형 전성어미는 어떤 게 있었다?

00:14:24.557 --> 00:14:29.618  
~기도 있었고, ~음,  
ㅁ도 있었죠.

00:14:29.718 --> 00:14:32.971  
그래서 이거는 으가 있을  
때는 매개모음 으이기 때문에

00:14:33.071 --> 00:14:36.702  
받침이, 앞에 어간이 받침이 있으면  
뽀금 이렇게 나가는 거죠.

00:14:36.802 --> 00:14:39.735  
그런데 지금 본 것처럼  
빼다, 뺨 이렇게 쓸 때는

00:14:39.835 --> 00:14:41.019  
ㅁ만 오게 되는 겁니다.

00:14:41.119 --> 00:14:43.246  
그래서 명사절을 찾을  
때는 되게 간단해요.

00:14:43.346 --> 00:14:45.403  
이거 찾으면 돼, 이거.

00:14:45.503 --> 00:14:47.995  
이 기능을 하는 놈을  
찾게 되면 끝납니다.

00:14:48.095 --> 00:14:51.255  
지금 그래서 위에 있는  
것들은 ㅁ이나 음 같은 걸

00:14:51.355 --> 00:14:53.008  
사용하는 상황을 만들어  
보려고 하고,

00:14:53.108 --> 00:14:55.991  
밑에 있는 건 기를 통해서  
만들어지는 건데, 뽀시다.

00:14:56.091 --> 00:14:57.698  
보죠.

00:14:57.798 --> 00:14:59.601  
마지막 여기 서술어 뭐예요?

00:14:59.701 --> 00:15:01.204  
불가능하다.

00:15:01.304 --> 00:15:04.311  
주어는 무엇이 불가능하다?

00:15:04.411 --> 00:15:06.937  
이쪽에 주어가 나와야 돼요,  
이쪽이 주어가 나와야 됩니다.

00:15:07.037 --> 00:15:09.017

그런데 서술어였을 놈이  
또 뭐가 있어요?

00:15:09.117 --> 00:15:12.496

떡다가 서술어였을 놈이죠,  
이거 서술어였을 놈.

00:15:12.596 --> 00:15:14.174

누가 떡다? 없어요, 지금.

00:15:14.274 --> 00:15:15.376

누가가 없어요.

00:15:15.476 --> 00:15:18.378

그럼 역시 생략되어 있는  
정보라고 보면 내가.

00:15:18.478 --> 00:15:21.204

이게 지금 주어라고 봐줘야 되겠죠.

00:15:21.304 --> 00:15:22.436

그럼 어떻게 된다?

00:15:22.536 --> 00:15:25.928

여기까지가 지금 안겨  
있는 상태입니다.

00:15:26.028 --> 00:15:29.468

내가 이 빵을 한 입에 떡다.

00:15:29.568 --> 00:15:33.050

무엇이 불가능하다라고  
하는 두 문장.

00:15:33.150 --> 00:15:37.583

그런데 무엇이 불가능하다, 무엇이  
자리, 주어 자리가 이 자리잖아요.

00:15:37.683 --> 00:15:41.571

이 자리인데, 이  
자리에 이 절이 와서

00:15:41.671 --> 00:15:44.526

주어 역할을 당당하게  
해주고 있어요.

00:15:44.626 --> 00:15:47.271

왜? 조사랑 붙어 있어요.

00:15:47.371 --> 00:15:49.696

사실 이 는도 보조사이기  
때문에 헛갈릴 수 있지만

00:15:49.796 --> 00:15:51.701

~하기가 되는 거죠.

00:15:51.801 --> 00:15:54.215

그래서 이 자리가 가가  
와야 될 자리가기 때문에

00:15:54.315 --> 00:15:58.582

애는 주격 조사가 오는 주어  
맞구나라고 판단하시면 됩니다.

00:15:58.682 --> 00:16:04.335

그러면 애는 지금 내가 이  
빵을 한 입에 먹다라는 형태가

00:16:04.435 --> 00:16:08.310

내가 한 입에 먹기로  
바뀌면서 이 기가 뭐라고요?

00:16:08.410 --> 00:16:09.745

명사형 전성어미.

00:16:09.845 --> 00:16:11.885

그러면서 명사처럼 쓰이는 거죠.

00:16:11.985 --> 00:16:13.648

그렇죠? 통과는 불가능하다.

00:16:13.748 --> 00:16:15.575

통과, 명사 하나 올  
자리처럼 쓰이는 거죠.

00:16:15.675 --> 00:16:16.766

통과는 불가능하다.

00:16:16.866 --> 00:16:19.397

통과라고 하는 명사 올 자리에  
이렇게 절이 와 있습니다.

00:16:19.497 --> 00:16:21.001

밑에 것도 가보죠.

00:16:21.101 --> 00:16:25.127

서술어 뭐 있습니까? 바랍니다.

00:16:25.227 --> 00:16:29.222

누가 바랄까요? 저는 바랍니다.

00:16:29.322 --> 00:16:32.356

생략되어 있죠, 지금.

00:16:32.456 --> 00:16:34.810

저는 바랍니다.

00:16:34.910 --> 00:16:37.331

바깥 주어, 바깥 서술어입니다.

00:16:37.431 --> 00:16:39.577

서술어 또 하나 있죠.

00:16:39.677 --> 00:16:41.414

만사형통하다, 만사형통하다.

00:16:41.514 --> 00:16:45.520

만사형통하기로 바뀌었습니다.

00:16:45.620 --> 00:16:48.029

즉, 이놈이 원래

서술어였을 놈이죠.

00:16:48.129 --> 00:16:51.352  
그럼 누가 만사형통하는 걸까요?

00:16:51.452 --> 00:16:52.554  
백락상 당신이죠.

00:16:52.654 --> 00:16:56.451  
역시 주어가 또 생략되어 있어요.

00:16:56.551 --> 00:16:59.780  
당신이라고 하는 주어가  
생략되어 있는 겁니다.

00:16:59.880 --> 00:17:03.133  
즉, 저는 무엇을  
바랍시다라고 하는 문장과

00:17:03.233 --> 00:17:06.158  
그다음에 당신이 올해도  
만사형통하다라고 하는 문장이

00:17:06.258 --> 00:17:10.302  
조합이 되는데, 나는  
무엇을 바랍시다 안에

00:17:10.402 --> 00:17:12.985  
당신이 만사형통하다를  
껴넣으려고 어떻게 했다?

00:17:13.085 --> 00:17:15.637  
형태를 바꿔준 거죠.

00:17:15.737 --> 00:17:16.819  
뭐의 형태로?

00:17:16.919 --> 00:17:18.567  
만사형통하기의 형태로요.

00:17:18.667 --> 00:17:20.378  
명사절을 만들어 버립니다.

00:17:20.478 --> 00:17:24.101  
그리고 이 명사절은 문장 내에서  
뭐의 역할을 하고 있다?

00:17:24.201 --> 00:17:25.574  
를 바랍시다.

00:17:25.674 --> 00:17:26.997  
목적격 조사 붙어 있죠.

00:17:27.097 --> 00:17:31.644  
얘는 목적어 역할을 하고 있는 거,  
목적어 역할. 그렇죠?

00:17:31.744 --> 00:17:33.517  
저는 무엇을 바랍시다.

00:17:33.617 --> 00:17:35.945

합격을 바랍니다 할 때  
합격 같은 거 올 자리가

00:17:36.045 --> 00:17:37.333  
지금 딱 절 하나가 왔어요.

00:17:37.433 --> 00:17:38.744  
그래서 목적어 기능입니다.

00:17:38.844 --> 00:17:39.976  
밑에 가볼까요?

00:17:40.076 --> 00:17:41.920  
서술어 뭐 있어요?  
부르자, 부르자.

00:17:42.020 --> 00:17:44.260  
부르자가 서술어죠.

00:17:44.360 --> 00:17:45.948  
끝에서 찾는 겁니다.

00:17:46.048 --> 00:17:49.534  
누가 부르자? 우리 부르자, 우리  
부르자, 내가 부르자 등등.

00:17:49.634 --> 00:17:52.519  
그런데 자가 나왔으니까 청유형으로  
우리가 좀 어울리겠죠.

00:17:52.619 --> 00:17:54.844  
우리는 노래 부르자.

00:17:54.944 --> 00:17:57.700  
이놈이 전체 주어가 됩니다.

00:17:57.800 --> 00:18:00.832  
지금 가만히 보면 주어 생략되는  
거 되게 많죠, 아시겠죠?

00:18:00.932 --> 00:18:04.630  
그래서 서술어는 생략을 못 하지만,  
주어는 빠지는 게 많아요.

00:18:04.730 --> 00:18:06.451  
또는 중복되는 것도 많고요.

00:18:06.551 --> 00:18:10.616  
뒤쪽은 문체가 없는 같은데,  
이 부분 한번 볼게요.

00:18:10.716 --> 00:18:12.818  
서술어였을 놈이 뭐가 있어요?

00:18:12.918 --> 00:18:14.506  
가다, 가다.

00:18:14.606 --> 00:18:16.036  
가다가 서술어였을 놈이죠.

00:18:16.136 --> 00:18:20.847

역시 마찬가지로, 가라고  
하는 형태로 바뀌었습니다.

00:18:20.947 --> 00:18:22.742  
누가 가는 거예요?

00:18:22.842 --> 00:18:24.270  
사람들이 가는 거죠.

00:18:24.370 --> 00:18:25.921  
여기 주어 보이네요,

00:18:26.021 --> 00:18:28.080  
즉, 사람들이 다 가다.

00:18:28.180 --> 00:18:30.169  
그게 어떻게 바뀌었어요?

00:18:30.269 --> 00:18:32.541  
사람들이 가기로 바뀌었습니다.

00:18:32.641 --> 00:18:34.070  
그리고 기능은 뭘까요?

00:18:34.170 --> 00:18:35.637  
사람들이 가기.

00:18:35.737 --> 00:18:36.671  
뒤에 조사가 없어.

00:18:36.771 --> 00:18:41.559  
애네는 부자임이, 을, 으로서, 는,  
를 이런 식으로 조사가 붙었는데

00:18:41.659 --> 00:18:43.130  
애는 조사가 없어.

00:18:43.230 --> 00:18:46.242  
없고 대신에 가기,  
이렇게 되어 버리죠.

00:18:46.342 --> 00:18:50.066  
가기 전, 뭐 하기 전.

00:18:50.166 --> 00:18:52.621  
전이 품사가 뭘니까? 명사.

00:18:52.721 --> 00:18:56.858  
즉, 체언을 꾸며준다는 건  
애가 뭐의 역할을 하고 있다?

00:18:56.958 --> 00:18:59.141  
관형어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.

00:18:59.241 --> 00:19:04.050  
그래서 애가 관형어의 역할을 하고  
있는 명사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.

00:19:04.150 --> 00:19:05.999  
지금 용어들을 잘 기억하셔야 돼.

00:19:06.099 --> 00:19:08.786  
무슨 얘기냐면 명사절을 찾았어요.

00:19:08.886 --> 00:19:16.278  
명사절은 기나, 다시 한번  
말씀드리면 기나, 그렇죠?

00:19:16.378 --> 00:19:20.222  
그다음에 으, ㅁ, 이걸  
만들어줘야 됩니다.

00:19:20.322 --> 00:19:21.873  
이렇게 명사처럼 쓰여야 돼요.

00:19:21.973 --> 00:19:26.845  
명사처럼 쓰이고 나서 뒤에  
붙는 조사 위치에 따라서

00:19:26.945 --> 00:19:29.320  
개가 주어로 쓰일 수도 있고,  
목적어로 쓰일 수도 있고,

00:19:29.420 --> 00:19:31.492  
부사어로 쓰일 수도 있고,  
관형어로 쓰일 수 있는 거지

00:19:31.592 --> 00:19:36.533  
그 명사절 자체가 관형절,  
부사절이라는 말하고

00:19:36.633 --> 00:19:37.337  
섞어 쓰면 안 되는 겁니다.

00:19:37.437 --> 00:19:39.763  
우리가 지금 관형절,  
부사절도 적어 봤잖아요.

00:19:39.863 --> 00:19:41.837  
그러니까 그건 따로  
나와 있는 거고.

00:19:41.937 --> 00:19:44.338  
명사절인 건 이거로 이미  
판단이 되는 거고.

00:19:44.438 --> 00:19:48.356  
그 뒤에 조사에 의해서  
명사절의 기능이 부사 역할,

00:19:48.456 --> 00:19:51.985  
관형어 역할, 이렇게 달라질 수  
있다는 걸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.

00:19:52.085 --> 00:19:56.805  
그러면 다음.

00:19:56.905 --> 00:20:01.814  
이번에 이제 관형절을  
찾아 보도록 하죠.

00:20:01.914 --> 00:20:03.931

관형절입니다.

00:20:04.031 --> 00:20:07.269

관형절이라고 하는 건 그  
절이 안겨 있는데.

00:20:07.369 --> 00:20:10.056

관형어의 역할을 하고 있게끔  
안겨 있으면 되겠네요.

00:20:10.156 --> 00:20:11.969

바깥부터 서술어 가볼게요.

00:20:12.069 --> 00:20:13.729

아이다, 아이이다.

00:20:13.829 --> 00:20:16.238

누가 아이죠? 내 짝이 아이네요.

00:20:16.338 --> 00:20:17.791

이게 주어입니다.

00:20:17.891 --> 00:20:19.602

또 다른 서술어였을  
놈이 뭐가 있죠?

00:20:19.702 --> 00:20:22.419

많다, 많다.

00:20:22.519 --> 00:20:25.096

뭐가 많죠? 이해심이 많습시다.

00:20:25.196 --> 00:20:26.183

좀 간단하죠.

00:20:26.283 --> 00:20:28.520

그래서 이해심이 많은 아이다.

00:20:28.620 --> 00:20:32.886

이해심이 많은 아이다  
하고 꾸며주고 있죠.

00:20:32.986 --> 00:20:35.077

아이를 꾸며줍니다.

00:20:35.177 --> 00:20:37.038

내 짝은 아이다, 어떤 아이냐?

00:20:37.138 --> 00:20:39.344

이해심이 많은 아이다하고  
꾸며줬어요.

00:20:39.444 --> 00:20:42.960

그러면 원래는 이해심이  
많다였다가 많다에서 다 대신에

00:20:43.060 --> 00:20:44.612

뭐를 지금 취해줬죠?

00:20:44.712 --> 00:20:48.263

은이라고 하는 무슨 어미?

00:20:48.363 --> 00:20:51.959  
관형사형 전성어미를 취했죠.

00:20:52.059 --> 00:20:54.190  
이거 지금 관형사형 전성어미죠.

00:20:54.290 --> 00:20:55.815  
그러니까 관형절 되는 거예요.

00:20:55.915 --> 00:20:58.203  
다음 것도 가볼까요.

00:20:58.303 --> 00:20:59.650  
서술어 뭐 있습니까?

00:20:59.750 --> 00:21:02.213  
포유류입니다, 포유류입니다.

00:21:02.313 --> 00:21:03.370  
서술어죠.

00:21:03.470 --> 00:21:05.942  
뭐가요? 이들은 포유류입니다.

00:21:06.042 --> 00:21:07.113  
이게 주어죠.

00:21:07.213 --> 00:21:11.724  
그다음에 또 다른 서술어였을 놈이  
하다라는 게 서술어였을 놈이죠.

00:21:11.824 --> 00:21:14.422  
하다.

00:21:14.522 --> 00:21:16.498  
뭐가 주어입니까?

00:21:16.598 --> 00:21:19.026  
이들은 과일을 주식으로 하다.

00:21:19.126 --> 00:21:21.078  
여기가 주어는 중복입니다, 그렇죠?

00:21:21.178 --> 00:21:24.912  
중복되어 있는 건데, 이놈이  
어찌됐든 안겨 있어요.

00:21:25.012 --> 00:21:28.140  
그러면 안기면서 뭘  
꾸며주고 있느냐?

00:21:28.240 --> 00:21:30.059  
그러한 포유류를 꾸며주고 있죠.

00:21:30.159 --> 00:21:32.168  
이 포유류를 꾸며줍니다.

00:21:32.268 --> 00:21:36.323  
그런데 이 포유류를 꾸며주기  
위해서 하다 대신에

00:21:36.423 --> 00:21:39.052  
는을 취했잖아요, 는.

00:21:39.152 --> 00:21:42.030  
는이 뭐다? 관형사형 전성어미였죠.

00:21:42.130 --> 00:21:43.756  
그러니까 관형절 되는 거예요.

00:21:43.856 --> 00:21:45.385  
다음 문장 갑니다.

00:21:45.485 --> 00:21:47.241  
서술어 어디 있어요?

00:21:47.341 --> 00:21:49.833  
잊어서는 안 된다, 이거 전체를  
다 서술어로 볼 수 있죠.

00:21:49.933 --> 00:21:52.147  
잊어서는 안 된다.

00:21:52.247 --> 00:21:53.689  
본용언, 보조용언  
개념으로 볼 수 있고요.

00:21:53.789 --> 00:21:55.785  
다음 보겠습니다.

00:21:55.885 --> 00:21:59.499  
앞에 지금 보게 되면 누구는  
잊어서는 안 됩니까?

00:21:59.599 --> 00:22:03.513  
우리는 정도가 지금  
빠져 있다고 봐야죠.

00:22:03.613 --> 00:22:05.691  
주어로 우리네이 빠져 있습니다.

00:22:05.791 --> 00:22:08.781  
맥락상 우리는, 이게  
지금 주어예요.

00:22:08.881 --> 00:22:11.723  
우리는 ~를 잊어서는  
안 된다는 거였어요.

00:22:11.823 --> 00:22:13.847  
그런데 지금 여기  
보니까 안겨 있는 게

00:22:13.947 --> 00:22:17.048  
서술어 기능을 하고 있었을  
놈이 뭐 있습니까?

00:22:17.148 --> 00:22:20.576  
도와주다 있죠, 도와주다.

00:22:20.676 --> 00:22:21.743

누가 도와주다?

00:22:21.843 --> 00:22:24.160

애가, 그가, 그렇죠?

00:22:24.260 --> 00:22:26.311

애가 서술어, 애가 지금 주어죠.

00:22:26.411 --> 00:22:27.508

안겨 있는 거예요, 이렇게.

00:22:27.608 --> 00:22:30.130

그가 우리를 도와주다라고 하는 게  
그가 우리를 도와준의 형태로

00:22:30.230 --> 00:22:31.367

바뀌었어요.

00:22:31.467 --> 00:22:35.527

그럼 여기에서는 도와주다에서  
다 대신에 뭐 취했죠?

00:22:35.627 --> 00:22:37.099

ㄴ 들어왔죠, ㄴ.

00:22:37.199 --> 00:22:38.341

ㄴ이 뭐다?

00:22:38.441 --> 00:22:39.921

관형사형 전성어미.

00:22:40.021 --> 00:22:43.310

그래서 뭘 꾸며줍니까?  
도와 준 사실.

00:22:43.410 --> 00:22:45.922

명사 꾸며주는 거잖아요.

00:22:46.022 --> 00:22:47.144

계속 갑니다.

00:22:47.244 --> 00:22:50.061

지금까지 본 공포영화가 천  
편이 넘는다고 했습니다.

00:22:50.161 --> 00:22:51.836

바깥 서술어 뭐 있습니까?

00:22:51.936 --> 00:22:55.212

서술어 넘는다, 그렇죠?

00:22:55.312 --> 00:22:58.955

그다음에 천 편이 넘는다,  
이것도 지금 주어고요.

00:22:59.055 --> 00:23:03.623

그다음에 여기에 있는 공포  
영화가, 이것도 지금 주어인데.

00:23:03.723 --> 00:23:05.058

이것도 지금 주어예요.

00:23:05.158 --> 00:23:07.868

이렇게 되어 버리게 되면  
이게 뒤에 공부하게 되는

00:23:07.968 --> 00:23:10.642

서술절을 안은 문장이라는  
요소가 또 나오게 돼요.

00:23:10.742 --> 00:23:12.065

그런데 이걸 뒤에 가고.

00:23:12.165 --> 00:23:14.788

우선 우리가 확인해  
보고 싶은 건 뭐냐면

00:23:14.888 --> 00:23:17.836

또 다른 서술어였을 놈이  
이놈이에요, 보다.

00:23:17.936 --> 00:23:21.272

그다음에 지금까지가, 아니죠.

00:23:21.372 --> 00:23:22.594

보다, 누가 보다?

00:23:22.694 --> 00:23:25.754

내가 지금 생략되어 있죠.

00:23:25.854 --> 00:23:28.351

안겨 있어.

00:23:28.451 --> 00:23:32.489

내가 지금까지 본 공포영화  
이렇게 나왔는데.

00:23:32.589 --> 00:23:35.363

내가 지금까지 본이 뭘  
꾸며주고 있는 거죠?

00:23:35.463 --> 00:23:37.872

공포영화를 꾸며.

00:23:37.972 --> 00:23:39.309

공포영화를 꾸며.

00:23:39.409 --> 00:23:44.470

이렇게 되면 역시나 보다라고 하는  
놈이 공포영화를 꾸미기 위해서

00:23:44.570 --> 00:23:48.201

형태가 변할 텐데, 그 변하게 된  
것이 노이 지금 더해진 거죠.

00:23:48.301 --> 00:23:49.706

이거예요.

00:23:49.806 --> 00:23:52.264

그래서 이것이 관형절 안은  
문장이라고 하는 거죠.

00:23:52.364 --> 00:23:54.208

바로 뒤에 나오는  
체인 꾸미는 겁니다.

00:23:54.308 --> 00:23:55.401

밑에 거요.

00:23:55.501 --> 00:23:59.397

안 보인다, 서술어.

00:23:59.497 --> 00:24:02.862

누가 안 보이죠? 소녀가 안  
보이는 거예요, 소녀가.

00:24:02.962 --> 00:24:04.425

소녀가 안 보여요.

00:24:04.525 --> 00:24:08.207

다음 서술어가 뭐가 있습니까?

00:24:08.307 --> 00:24:10.866

팔다, 팔다라고 하는  
놈이 서술어였겠죠.

00:24:10.966 --> 00:24:14.393

그런데 여기에 지금 서술어가  
있고, 누가 파는 거죠?

00:24:14.493 --> 00:24:19.910

소녀가 성냥을 파는 거죠.

00:24:20.010 --> 00:24:22.941

이놈이 주어, 안겨  
있는 거야, 그렇죠?

00:24:23.041 --> 00:24:26.099

안겨 있는데 이놈이 지금  
뭘 꾸며주고 있죠?

00:24:26.199 --> 00:24:28.320

이걸 꾸며주고 있는 거죠.

00:24:28.420 --> 00:24:34.876

그래서 성냥을 팔다가 팔논이 되고,  
논이 왔을 때는 큰 빠지죠, 그렇죠?

00:24:34.976 --> 00:24:36.523

그래서 파논이 되는 겁니다.

00:24:36.623 --> 00:24:40.985

여기도 역시 관형사형  
전성어미가 보여요, 는.

00:24:41.085 --> 00:24:43.023

그다음 거 가겠습니다.

00:24:43.123 --> 00:24:45.516

지난번에 만났던 카페에서  
기다릴게라고 했습니다.

00:24:45.616 --> 00:24:46.652

서술어 어디 있어요?

00:24:46.752 --> 00:24:48.017  
기다릴게.

00:24:48.117 --> 00:24:50.383  
주어는 생략되어 있다고 봐야죠.

00:24:50.483 --> 00:24:54.011  
나는.

00:24:54.111 --> 00:24:57.395  
다음, 또 서술어였을 놈이 뭐니까?

00:24:57.495 --> 00:25:01.713  
만났다, 만나다가 서술어였죠,  
만나다 서술어였을 놈입니다.

00:25:01.813 --> 00:25:03.394  
그래서 이 서술어였던 놈.

00:25:03.494 --> 00:25:04.606  
누가 만났죠?

00:25:04.706 --> 00:25:05.977  
우리가 만난 거죠.

00:25:06.077 --> 00:25:10.053  
그럼 여기에 생략되어 있는 정보가  
또 우리가 정도 생략되어 있겠죠.

00:25:10.153 --> 00:25:12.475  
우리가 주어.

00:25:12.575 --> 00:25:16.016  
그럼 우리가 지난번에  
만나다라는 표현인데.

00:25:16.116 --> 00:25:18.242  
그게 만났던으로 바뀌죠.

00:25:18.342 --> 00:25:20.774  
뭐가 들어왔습니까? 던, 던.

00:25:20.874 --> 00:25:23.091  
그리고 뭘 꾸며준다?

00:25:23.191 --> 00:25:25.511  
카페 꾸며주고 있어요.

00:25:25.611 --> 00:25:29.522  
그러면 안겨 있는 문장들, 안겨  
있는 놈들 전부 다 절이예요.

00:25:29.622 --> 00:25:31.622  
주어 하나, 서술어 하나로  
이루어져 있는 놈들인데.

00:25:31.722 --> 00:25:34.592  
그놈들이 전부 다 뭘 꾸며준다?

00:25:34.692 --> 00:25:36.100

체언을 꾸며준다.

00:25:36.200 --> 00:25:37.447

따라서 개를 뭐라고 한다?

00:25:37.547 --> 00:25:39.347

관형절을 안은 문장이라고 합니다.

00:25:39.447 --> 00:25:41.290

이제 정보를 볼게요.

00:25:41.390 --> 00:25:45.353

구조상 안겨 있는 절이 있는데, 그 절의 형태가 어떻게 되어 있다?

00:25:45.453 --> 00:25:49.577

관형사형 전성어미를 찾으시면 되죠.

00:25:52.142 --> 00:25:54.672

관형사형 전성어미  
어떤 게 있었습니까?

00:25:54.772 --> 00:25:59.516

~은, ~는, ~을,  
~던이었던 거죠.

00:25:59.616 --> 00:26:04.196

이중에서 으는 매개모음이기 때문에 받침 있고, 없고에 따라 빠지는

00:26:04.296 --> 00:26:05.760

그런 상황이 만들어집니다.

00:26:05.860 --> 00:26:06.792

이게 힌트가 되죠.

00:26:06.892 --> 00:26:10.689

이게 있으면 일단 관형절이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되는 건데.

00:26:10.789 --> 00:26:15.686

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.

00:26:18.156 --> 00:26:23.865

안긴 문장 부분들을 다시 한번 표시해 볼게요.

00:26:34.796 --> 00:26:38.200

딱 안긴 문장을 이렇게 괄호를 간단하게 치면

00:26:38.300 --> 00:26:43.546

은, 는, 는, 는, 는, 던으로 끝났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.

00:26:43.646 --> 00:26:45.276

관형절인데요.

00:26:45.376 --> 00:26:49.847

지금 이 안긴 문장들의

원문장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

00:26:49.947 --> 00:26:54.174  
위에 있는 세 개는 원문장이 그대로  
가 있는 형태를 잡아주고 있어요.

00:26:54.274 --> 00:26:55.060  
다시 잡니다.

00:26:55.160 --> 00:26:57.643  
이해심이 많다,  
주어+서술어 완성돼요.

00:26:57.743 --> 00:26:59.576  
이들은 과일을 주식으로  
한다, 완성돼요.

00:26:59.676 --> 00:27:02.842  
그가 우리를 도와주다, 완성됩니다.

00:27:02.942 --> 00:27:05.559  
그러니까 이게 온전한 문장이  
들어간 상태가 돼요.

00:27:05.659 --> 00:27:20.267  
그래서 안긴 문장에  
관형절의 유형이 나뉘는데

00:27:20.367 --> 00:27:25.818  
하나는 동격 관형절이라는  
게 있습니다.

00:27:25.918 --> 00:27:29.476  
지금 위에 세 문장은 전부 다 동격  
관형절이라고 볼 수 있었던 거예요.

00:27:29.576 --> 00:27:30.950  
애네는 전부 다.

00:27:31.050 --> 00:27:33.187  
어떤 식으로 제가 동격  
관형절이라고 했었죠?

00:27:33.287 --> 00:27:36.095  
원문장에서 문장 성분이  
빠진 게 없어요.

00:27:36.195 --> 00:27:40.960  
빠진 게 있어도 상관없는데, 그  
빠진 것이 수식받고 있는 대상과는

00:27:41.060 --> 00:27:42.701  
상관없다는 거죠.

00:27:42.801 --> 00:27:46.126  
즉, 이 아이, 포유류,  
사실이라는 단어가 원문장에

00:27:46.226 --> 00:27:48.150  
들어갔을 리가 없다는 겁니다.

00:27:48.250 --> 00:27:51.014

그런 걸 우리는 동격  
관형절이라고 이야기를 해요.

00:27:51.114 --> 00:28:01.299

그럼 이걸 관계 관형절이라고  
하는 거는 수식받고 있는,

00:28:01.399 --> 00:28:18.247

관형절의 수식을 받는  
명사가, 체언이.

00:28:18.347 --> 00:28:28.857

명사가 아니라 체언이  
관형절 안에 없을 때.

00:28:28.957 --> 00:28:32.295

즉, 생략이 됐다는 얘기입니다.

00:28:32.395 --> 00:28:34.462

그런 게 관계 관형절이고요.

00:28:34.562 --> 00:28:37.269

지금 이 동격 관형절은  
수식받는 체언이 관형절 안에

00:28:37.369 --> 00:28:38.890

원래 없었던 걸 얘기하는 거예요.

00:28:38.990 --> 00:28:40.726

이제 밑에 세 문장을 볼게요.

00:28:40.826 --> 00:28:43.083

지금까지 보았다, 지금까지 보다.

00:28:43.183 --> 00:28:44.251

뭐를 봤죠?

00:28:44.351 --> 00:28:45.605

공포영화를 봤죠.

00:28:45.705 --> 00:28:51.632

그러니까 원래 이 문장에는  
지금까지 공포영화를 보다.

00:28:51.732 --> 00:28:54.422

이게 나왔어야 되는 거,  
원문장은 그런 거죠.

00:28:54.522 --> 00:28:56.897

성냥을 팔다, 누가요?

00:28:56.997 --> 00:29:00.555

소녀가 성냥을 팔다.

00:29:00.655 --> 00:29:03.015

소녀가 성냥을 팔다,  
이렇게 되어야죠.

00:29:03.115 --> 00:29:05.018

지난번에 만났다.

00:29:05.118 --> 00:29:08.925  
지난번에, 우리가 빠져 있지만, 우리가  
때문이 아니에요, 여기에서는.

00:29:09.025 --> 00:29:11.148  
지난번에 어디에서 만나다?

00:29:11.248 --> 00:29:14.689  
카페에서 만나다.

00:29:14.789 --> 00:29:16.857  
물론 여기는 주어도 빠져 있어요.

00:29:16.957 --> 00:29:18.786  
그런데 주어가 여기  
영향은 안 미치고.

00:29:18.886 --> 00:29:21.535  
그럼 지금 보시면 위에  
있는 건 이해심이 많다.

00:29:21.635 --> 00:29:23.163  
아이랑 상관없어요, 그렇죠?

00:29:23.263 --> 00:29:25.142  
내 짝이 이해심 많은 거지.

00:29:25.242 --> 00:29:26.536  
그래서 그다음요.

00:29:26.636 --> 00:29:28.050  
이들은 과일을 주식으로  
한다, 끝났어요.

00:29:28.150 --> 00:29:29.397  
그가 우리를 도와주었다, 끝났어요.

00:29:29.497 --> 00:29:31.337  
사실이라는 말이 이  
안에 들어갈 수 없고,

00:29:31.437 --> 00:29:32.875  
포유류라는 말이 이 안에  
들어갈 수 없었어요.

00:29:32.975 --> 00:29:35.607  
그런데 애네는 지금까지  
공포영화를 보다.

00:29:35.707 --> 00:29:39.448  
그런데 지금까지 공포영화를 본  
공포영화 하면 어색하잖아요.

00:29:39.548 --> 00:29:43.982  
그러니까 그 수식받고 있는 대상이  
관형절 안에 들어가 있었던 건

00:29:44.082 --> 00:29:45.519  
관형절 거 빼줍니다.

00:29:45.619 --> 00:29:48.131  
그다음 여기, 소녀가 성냥을  
파는 소녀가 하면 이상하잖아요.

00:29:48.231 --> 00:29:50.527  
그러니까 성냥을 파는 소녀가  
하면서 소녀를 빼줘요.

00:29:50.627 --> 00:29:52.343  
또, 지난번에 카페에서 만났다.

00:29:52.443 --> 00:29:55.191  
지난번에 카페에서 만났던  
카페에서, 안 되잖아요.

00:29:55.291 --> 00:29:56.667  
그래서 빼주는 거예요.

00:29:56.767 --> 00:29:59.224  
그래서 이런 세 가지를  
전부 다 뭐라고 한다?

00:29:59.324 --> 00:30:00.364  
관계 관형절.

00:30:00.464 --> 00:30:01.493  
구분할 수 있겠죠?

00:30:01.593 --> 00:30:03.213  
그럼 출제할 때 이런  
것도 가능해요.

00:30:03.313 --> 00:30:05.112  
지금 빠져 있는 관형절.

00:30:05.212 --> 00:30:08.381  
그러니까 관형절 안에 생략되어  
있는 문장 성분이 무엇이었느냐.

00:30:08.481 --> 00:30:11.316  
목적어, 주어, 부사어.

00:30:11.416 --> 00:30:14.465  
이런 것도 찾아낼 수 있어야죠.  
그렇죠?

00:30:14.565 --> 00:30:21.137  
수식받고 있는 대상과 일치한 생략되어  
있는 놈들의 문장 성분이 뭘까?

00:30:21.237 --> 00:30:24.513  
목적어, 주어, 부사어를  
끄집어낼 수 있느냐.

00:30:24.613 --> 00:30:26.877  
이것도 질문할 수 있는  
요소 중 하나입니다.

00:30:26.977 --> 00:30:31.549  
그래서 관형절은 이렇게 동격  
관형절과 관계 관형절로

00:30:31.649 --> 00:30:33.225  
나눠볼 수가 있었어요.

00:30:33.325 --> 00:30:35.686  
부사절을 안은 문장입니다.

00:30:35.786 --> 00:30:38.160  
부사절을 안은 문장 가볼까요?

00:30:38.260 --> 00:30:39.604  
그럼 같은 개념이죠.

00:30:39.704 --> 00:30:43.827  
지금 주어랑 서술어로 되어  
있는 그러한 절 형태가

00:30:43.927 --> 00:30:48.214  
명사형 전성어미를 취해주면서  
명사 기능해주면 명사절.

00:30:48.314 --> 00:30:54.056  
관형사형 전성어미 취하면서  
관형어 기능하면 관형절.

00:30:54.156 --> 00:30:59.073  
부사형 전성어미 취하면서  
부사어 역할해주면 부사절.

00:30:59.173 --> 00:31:00.448  
같은 계열이죠.

00:31:00.548 --> 00:31:02.717  
여기 서술어 밀었다.

00:31:02.817 --> 00:31:06.195  
누가 밀었어요? 아이는 밀었어요.

00:31:06.295 --> 00:31:07.434  
딱 밀었어요.

00:31:07.534 --> 00:31:11.525  
또 다른 서술어 뭐 있습니까?  
나다.

00:31:11.625 --> 00:31:16.131  
뭐가 나죠? 피가 나다.

00:31:16.231 --> 00:31:19.655  
이러면서 꾸미죠.  
됐습니까?

00:31:19.755 --> 00:31:23.907  
그러면 아이는 아빠의 등을 밀었다라는  
문장과 피가 나다라는 문장인데,

00:31:24.007 --> 00:31:25.599  
그 피가 나다가 안에 들어왔어요.

00:31:25.699 --> 00:31:28.838  
들어왔는데, 피가 나 그리고

뒤에 뭐가 붙었다?

00:31:28.938 --> 00:31:30.666  
도록 밀었다.

00:31:30.766 --> 00:31:32.564  
이때의 도록을 뭐라고 본다?

00:31:32.664 --> 00:31:36.497  
부사형 전성어미라고  
이제 취급하는 거죠.

00:31:36.597 --> 00:31:39.957  
그래서 밀었다라는 동사를  
꾸밀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.

00:31:40.057 --> 00:31:41.313  
부사절 맞죠.

00:31:41.413 --> 00:31:42.737  
다음 문장 가겠습니다.

00:31:42.837 --> 00:31:45.085  
서술어 어디 있어요? 설명하셨다.

00:31:45.185 --> 00:31:46.802  
누가 설명하셨어요?

00:31:46.902 --> 00:31:48.619  
선생님은, 선생님께서는.

00:31:48.719 --> 00:31:50.466  
이게 주어입니다.

00:31:50.566 --> 00:31:52.621  
또 다른 서술어였을 놈이 뭘까요?

00:31:52.721 --> 00:31:55.290  
알아듣다, 알아듣다.

00:31:55.390 --> 00:31:58.505  
주어는요? 초등학생이 알아듣다.

00:31:58.605 --> 00:32:02.191  
여기의 도는 이를 대체하고  
있는 거니까 주어 맞죠.

00:32:02.291 --> 00:32:04.871  
초등학생이 알아듣다.

00:32:04.971 --> 00:32:08.294  
초등학생이 알아듣게로 바뀌어요.

00:32:08.394 --> 00:32:10.822  
그러면서 어떤 기능입니까?

00:32:10.922 --> 00:32:11.884  
꾸며주게 되죠.

00:32:11.984 --> 00:32:15.938  
알아듣게 설명하셨다라고 하는 여기

있는 용언 쪽을 꾸며주고 있는 거.

00:32:16.038 --> 00:32:17.549

그러면 부사절이 맞죠.

00:32:17.649 --> 00:32:19.261

이때의 계를 뭐라고 부른다?

00:32:19.361 --> 00:32:21.622

부사형 전성어미라고 부르면 됩니다.

00:32:21.722 --> 00:32:25.120

어른 앞에서 예의 없이 행동하지  
말아라라고 얘기했어요.

00:32:25.220 --> 00:32:29.891

그럼 서술어가 행동하지 말아라라고  
하는 높을 전체 서술어로 잡아주고.

00:32:29.991 --> 00:32:31.224

누가 주어입니까?

00:32:31.324 --> 00:32:36.269

너는이 생략되어 있겠네요, 너는.

00:32:36.369 --> 00:32:41.510

그다음 서술어였을 높이 뭐죠?

00:32:41.610 --> 00:32:47.562

이놈인데 여기에서  
잠깐 문제가 생겨요.

00:32:47.662 --> 00:32:50.810

학교 문법에서는 이렇게  
처리하고 있습니다.

00:32:50.910 --> 00:32:54.069

지금 명사형 전성어미,  
관형사형 전성어미 취하게 되면

00:32:54.169 --> 00:32:55.752

안은 문장인 거 확인했었는데.

00:32:55.852 --> 00:33:03.444

부사절을 안은 문장은 지금 일단  
부사형 전성어미라고 하는 걸

00:33:03.544 --> 00:33:06.604

찾아야 되는데, 예를 들어 지금  
게나 도록 같은 게 나왔잖아요.

00:33:06.704 --> 00:33:09.909

그래서 게나 도록,  
이런 게 나왔는데.

00:33:10.009 --> 00:33:11.792

지금 잘 보세요.

00:33:11.892 --> 00:33:14.134

명사형 전성어미는 기랑 으, ㅁ.

00:33:14.234 --> 00:33:16.319  
끝이에요, 이게 다예요.

00:33:16.419 --> 00:33:19.368  
관형사형 전성어미 은,  
는, 을, 던 끝이에요.

00:33:19.468 --> 00:33:20.725  
더 없어요.

00:33:20.825 --> 00:33:27.017  
그런데 부사형 전성어미는 아예  
없거나 아니면 되게 많아요.

00:33:27.117 --> 00:33:29.099  
무슨 얘기냐.

00:33:29.199 --> 00:33:32.038  
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 
기준으로 보면

00:33:32.138 --> 00:33:37.614  
이렇게 기나 음, 은, 는을  
찾게 되면 이렇게 설명합니다.

00:33:37.714 --> 00:33:41.487  
어간에 붙어 명사 구실을  
하게 하는 어미.

00:33:41.587 --> 00:33:45.109  
어간에 붙어서 관형사  
구실을 하게 하는 어미.

00:33:45.209 --> 00:33:49.008  
그럼 우리는 이것도 기대를  
하고 볼 수 있겠네요.

00:33:49.108 --> 00:33:53.910  
어간에 붙어 부사 구실을 하게  
하는 어미라고 붙기를 기대했는데

00:33:54.010 --> 00:33:55.812  
그렇게 설명이 전혀  
안 되어 있어요.

00:33:55.912 --> 00:33:59.801  
뭐라고만 되어 있냐면  
연결어미라는 말 씁니다.

00:33:59.901 --> 00:34:03.673  
애네는 전성어미라고 하더니  
이 게나 도록을 찾으려면

00:34:03.773 --> 00:34:06.417  
어디에도 부사 기능을 하게  
하는 말을 쓰지 않고,

00:34:06.517 --> 00:34:08.236  
연결어미라는 말을 써버려요.

00:34:08.336 --> 00:34:09.667

도대체 이게 뭐냐.

00:34:09.767 --> 00:34:13.205

만약 표준국어대사전 기준으로  
봤을 때 이런 것들을

00:34:13.305 --> 00:34:17.308

연결어미로 취급해 버리면 부사형  
전성어미는 하나도 없는 거예요.

00:34:17.408 --> 00:34:21.933

그런데 만약 연결어미로 쓰이던  
놈을 부사형 전성어미로

00:34:22.033 --> 00:34:25.258

인정해줄 수 있으면 꽤 많은  
수의 전성어미들이 잡혀요.

00:34:25.358 --> 00:34:30.865

우선 학교 문법에서는 부사형  
전성어미를 인정해줍니다.

00:34:30.965 --> 00:34:32.206

있다고 보는 해석이에요.

00:34:32.306 --> 00:34:33.563

그거에 대한 설명을 드릴 거예요.

00:34:33.663 --> 00:34:36.747

그리고 추가적으로, 그러니까  
이렇게 등이라고 써놓을게요.

00:34:36.847 --> 00:34:38.403

이런 것 등.

00:34:38.503 --> 00:34:41.357

추가적으로 이걸 인정합니다.

00:34:41.457 --> 00:34:43.819

부사화 접미사.

00:34:48.133 --> 00:34:52.553

이의 형태를 취해주는 것도  
부사절을 안은 문장의 구성으로

00:34:52.653 --> 00:34:54.927

맞춰준다는 겁니다.

00:34:55.027 --> 00:34:57.394

볼게요, 이제.

00:34:57.494 --> 00:35:01.420

여러분, 애네는 나도록은  
사전 찾으려면 안 찾아져요.

00:35:01.520 --> 00:35:03.086

나도록은 안 나오죠.

00:35:03.186 --> 00:35:04.713

나다를 찾아야 찾을 수 있어요.

00:35:04.813 --> 00:35:07.907

또 알아듣게를 사전 찾으면  
안 나오는 놈이에요.

00:35:08.007 --> 00:35:10.942

왜? 알아듣다를 찾아야  
거기에서 활용하는 거니까.

00:35:11.042 --> 00:35:14.474

그런데 없이는 사전 찾으면 나와요.

00:35:14.574 --> 00:35:17.680

나와요. 왜요?

00:35:17.780 --> 00:35:21.670

없다에서 활용된 건, 없다에서  
출발한 단어라는 건 알고 있는데

00:35:21.770 --> 00:35:26.157

이가 붙어서, 이나 히가 붙어서 부사  
역할을 하면 부사라고 했잖아요.

00:35:26.257 --> 00:35:29.387

즉, 품사 자체가  
부사거든요, 사실은.

00:35:29.487 --> 00:35:30.816

그런데 말이죠.

00:35:30.916 --> 00:35:33.340

우리 국어의 문법상에서는  
이 없이라고 하는

00:35:33.440 --> 00:35:38.586

이렇게 이를 더해주는 부사 중에서  
마치 서술어에서 넘어온 것 같은

00:35:38.686 --> 00:35:40.947

느낌을 많이 주는 것들이 있어요.

00:35:41.047 --> 00:35:46.891

그래서 이런 문장의 경우에 주어랑  
연결될 수 있는 부사가 있다면,

00:35:46.991 --> 00:35:49.963

이로 끝나는 부사가 있다면  
그걸 부사절을 안은 문장이라고

00:35:50.063 --> 00:35:51.560

인정해주자는 겁니다.

00:35:51.660 --> 00:35:57.788

그러면 애가 여기에서는 부사임에도  
불구하고 없다의 활용처럼

00:35:57.888 --> 00:35:59.169

느끼고 있는 건데.

00:35:59.269 --> 00:36:02.235

그럼 주어가 뭐예요?  
뭐가 없는 거죠?

00:36:02.335 --> 00:36:04.223

그것도 쉽지 않죠.

00:36:04.323 --> 00:36:06.755

있긴 있는데 예의가 없는 거예요.

00:36:06.855 --> 00:36:08.715

주격조사가 빠져  
있어요, 지금 여기에.

00:36:08.815 --> 00:36:11.400

이게 주어입니다, 이렇게 돼요.

00:36:11.500 --> 00:36:16.114

그래서 여기에서는 예의가라고 하는  
주격조사가 빠져 있는 상태여서

00:36:16.214 --> 00:36:17.281

이게 안 보이는 건데.

00:36:17.381 --> 00:36:19.655

이게 지금 주어,  
서술어의 구성인 거예요.

00:36:19.755 --> 00:36:22.956

즉, 너는 어른 앞에서 행동하지  
말아라라고 하는 문장과

00:36:23.056 --> 00:36:26.794

예의가 없다고 하는 문장은  
두 가지가 결합되는데

00:36:26.894 --> 00:36:29.799

예의가 없다가 예의가 없게로  
바뀌어도 되겠지만,

00:36:29.899 --> 00:36:32.482

즉 너희는 어른 앞에서 예의가  
없게 행동하지 말아라.

00:36:32.582 --> 00:36:36.275

괜찮아요, 괜찮은데 예의가  
없이 행동하지 말아라라고 해도

00:36:36.375 --> 00:36:39.702

예의가 없거나 예의가 없이나  
동급으로 봐주겠다는 거예요.

00:36:39.802 --> 00:36:42.141

이렇게 부사절처럼.

00:36:42.241 --> 00:36:45.974

그런데 지금 가만히 보면 절대적으로  
부사절 안은 문장을 처리하려면

00:36:46.074 --> 00:36:51.894

주어 그리고 서술어가  
바깥에서 안겨 있는 문장을

00:36:51.994 --> 00:36:54.249

꽤 감싸고 있는 틀이어야만 해요.

00:36:54.349 --> 00:36:55.442  
밑에 걸 보겠습니다.

00:36:55.542 --> 00:36:58.662  
여러분, 위에 있는 문장이나 밑에  
있는 문장이나 다른 건 없어요.

00:36:58.762 --> 00:36:59.900  
똑같은 의미예요.

00:37:00.000 --> 00:37:01.152  
바닥이 비가 와서 미끄럽다.

00:37:01.252 --> 00:37:02.534  
비가 와서 바닥이 미끄럽다.

00:37:02.634 --> 00:37:05.362  
똑같은 문장인데 미끄럽다 서술어.

00:37:05.462 --> 00:37:06.768  
뭐가 미끄러운 거예요?

00:37:06.868 --> 00:37:08.106  
바닥이 미끄러운 거예요.

00:37:08.206 --> 00:37:12.586  
여기에서는 뭐가 서술적  
기능을 가지고 있습니까? 오다.

00:37:12.686 --> 00:37:16.407  
그다음 뭐가요? 비가요.

00:37:16.507 --> 00:37:24.046  
그런데 밑에 문장은  
바닥이 미끄럽다.

00:37:24.146 --> 00:37:28.511  
그래서 애는 이렇게 처리되는 거.

00:37:28.611 --> 00:37:40.114  
위에 있는 것을 안은 문장.

00:37:40.214 --> 00:37:42.554  
여러분 혹시 선생님이 이렇게  
안은 문장 이렇게 쓰면

00:37:42.654 --> 00:37:43.920  
선생님 띄어쓰기도 못 하세요?

00:37:44.020 --> 00:37:47.222  
왜 안 띄었습니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,  
이거 지금 붙여 쓰는 것은

00:37:47.322 --> 00:37:49.100  
문법 용어는 붙여 쓸  
수 있어요, 여러분.

00:37:49.200 --> 00:37:51.147  
그래서 이걸 다 하나짜리로

붙여주는 거고요.

00:37:51.247 --> 00:37:52.477  
띄어도 상관 없습니다.

00:37:52.577 --> 00:37:55.507  
그다음에 밑에 거 같은  
경우에는 어떻게 한다?

00:37:55.607 --> 00:37:58.199  
이어진 문장으로 보는  
거예요, 이어진 문장.

00:37:58.299 --> 00:38:01.163  
그래서 애가 됐을 때는 종속적으로.

00:38:01.263 --> 00:38:02.870  
이제 이걸 설명드려야 돼요.

00:38:02.970 --> 00:38:08.320  
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.

00:38:08.420 --> 00:38:12.557  
보면 주어, 서술어 안에 안겨 있는  
구조를 안은 문장이라고 하죠.

00:38:12.657 --> 00:38:15.392  
그다음에 주어, 서술어, 주어,  
서술어 연속적으로 나갈 때

00:38:15.492 --> 00:38:17.055  
우리가 이어진 문장으로 보는데.

00:38:17.155 --> 00:38:20.735  
항상 부사절을 안은  
문장은 위치를 뒤집으면

00:38:20.835 --> 00:38:23.431  
종속적으로 이어진  
문장으로 바뀌어요.

00:38:23.531 --> 00:38:30.777  
그래서 사전상에 왜 이 여기 도록이나  
게를 부사의 기능을 하게 하는

00:38:30.877 --> 00:38:33.774  
그러한 어미라는 설명을 안  
하고 연결어미로 얘기하냐면

00:38:33.874 --> 00:38:35.261  
이런 것 때문.

00:38:35.361 --> 00:38:37.082  
이것도 마찬가지로.

00:38:37.182 --> 00:38:39.956  
피가 나도록 아이는 아빠의  
등을 밀었다 이렇게 나가면

00:38:40.056 --> 00:38:41.302  
애는 이어진 문장 구조가 돼요.

00:38:41.402 --> 00:38:42.692  
애를 뒤로 넘겨버려.

00:38:42.792 --> 00:38:45.059  
그래서 피가 나도록 아이는  
아빠의 등을 밀었다 이러면

00:38:45.159 --> 00:38:48.116  
애는 연결어미 도록이 되는 거예요.

00:38:48.216 --> 00:38:52.062  
또 초등학교도 알아듣게 선생님은  
설명했다, 이렇게 나가잖아요.

00:38:52.162 --> 00:38:55.477  
그러면 알아듣게에서의  
게가 연결어미가 돼요.

00:38:55.577 --> 00:38:56.681  
이해되지죠?

00:38:56.781 --> 00:38:59.479  
그래서 둘 중에 기본형을  
연결어미의 기능으로

00:38:59.579 --> 00:39:01.372  
먼저 봐준 거예요,  
국립국어원에서는.

00:39:01.472 --> 00:39:05.510  
그런데 위치가 이렇게 되면 학교  
문법에서는 안겨 있는 구조로 보고

00:39:05.610 --> 00:39:08.266  
이걸 부사절을 안은 문장이라고  
인정하는 겁니다.

00:39:08.366 --> 00:39:12.041  
그럴 때는 애가 부사형  
전성어미로 처리하는 거고요.

00:39:12.141 --> 00:39:13.260  
이것도 똑같아요.

00:39:13.360 --> 00:39:14.879  
여기는 연결어미가 뭘까요?

00:39:14.979 --> 00:39:18.532  
와서가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 
오+아서가 필요해요.

00:39:18.632 --> 00:39:23.171  
그럼 이때의 아서의 기능이 윗  
문장에서는 뭐로 보겠다는 겁니까?

00:39:23.271 --> 00:39:25.090  
다시요.

00:39:25.190 --> 00:39:28.663  
윗 문장, 여기에서의 아서는,

여기에서의 아서는 뭐로?

00:39:28.763 --> 00:39:31.297  
부사절을 안은 문장으로.

00:39:31.397 --> 00:39:33.980  
비가 와서 미끄럽다를  
꾸며준다고 보는 거예요.

00:39:34.080 --> 00:39:38.349  
그러나 밑에 있는 거에서는  
이 아서가 어떤 어미로?

00:39:38.449 --> 00:39:41.513  
연결해주는 어미로 보는 거예요.

00:39:41.613 --> 00:39:43.553  
선행절과 후행절을 연결해주는.

00:39:43.653 --> 00:39:47.343  
그래서 이어진 문장을 만들어주는 구조.  
이해되시나요?

00:39:47.443 --> 00:39:50.803  
그래서 이 부사절을 안은 문장에서는  
좀 챙겨줘야 될 게 그거였어요.

00:39:50.903 --> 00:39:55.287  
일단 이라고 하는 부사화 접미사가  
붙어 있는 이런 구조 역시도

00:39:55.387 --> 00:39:58.213  
부사절을 안은 문장으로  
처리하겠다는 거고요.

00:39:58.313 --> 00:40:03.079  
그다음에 위치를 교체하게 되면  
이게 부사절을 안은 문장에서

00:40:03.179 --> 00:40:06.746  
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의 틀로  
변할 수도 있다는 거였어요.

00:40:06.846 --> 00:40:08.376  
다음.

00:40:08.476 --> 00:40:13.417  
이 세 가지 우리 명사절 그리고  
관형절, 그다음에 부사절까지는

00:40:13.517 --> 00:40:17.132  
어미를 통해서, 전성어미를  
통해서 이제 확인하는 거였다면

00:40:17.232 --> 00:40:21.651  
나머지 서술절과 인용절은 조금  
간단하다고 느껴질 수 있습니다.

00:40:21.751 --> 00:40:26.285  
특히나 출제를 할 때 서술절 안은  
문장은 복잡하게 주지는 못해요.

00:40:26.385 --> 00:40:28.268  
가보겠습니다.

00:40:28.368 --> 00:40:30.314  
서술어 뭐가 있어요? 짧아요.

00:40:30.414 --> 00:40:33.190  
뭐가 짧죠? 앞발이 짧아요.

00:40:33.290 --> 00:40:35.974  
그런데 지금 남아 있는  
놈을 가만히 보니까

00:40:36.074 --> 00:40:39.349  
토끼는 어떠하다라고 할 때  
토끼는이 주어거든요.

00:40:39.449 --> 00:40:41.149  
이게 지금 주어가 잡힙니다.

00:40:41.249 --> 00:40:43.936  
서술어 어디 있죠?

00:40:44.036 --> 00:40:45.470  
서술어로 봅니다.

00:40:45.570 --> 00:40:50.247  
그럼 이때의 주어, 서술어가  
전체 주어의 서술어 역할을 하는

00:40:50.347 --> 00:40:52.690  
절이기 때문에 서술절이라고 하는데.

00:40:52.790 --> 00:40:55.757  
이걸 판단하는 방법은 딱 이겁니다.

00:40:55.857 --> 00:40:58.182  
우리 아까 전에 앞  
문장 여럿 봤어요.

00:40:58.282 --> 00:41:02.039  
보면서 서술어와 주어를  
이렇게 짝 따져봤더니

00:41:02.139 --> 00:41:07.209  
서술어의 개수가 주어 개수보다  
항상 더 많을 수 있었습니다.

00:41:07.309 --> 00:41:09.806  
물론 주어, 서술어가 동일  
개수일 수는 있어요.

00:41:09.906 --> 00:41:12.237  
2개, 2개, 3개, 3개,  
심지어 이럴 수도 있는데.

00:41:12.337 --> 00:41:14.537  
만약에 주어 개수가 적다.

00:41:14.637 --> 00:41:16.049

서술어 개수보다 적다.

00:41:16.149 --> 00:41:20.297

즉, 서술어는 찾아봤더니  
서술어인 것과 서술어였을 것을

00:41:20.397 --> 00:41:23.087

찾아봤을 때 두 개가 나오는데,  
왜 주어는 하나지?

00:41:23.187 --> 00:41:26.168

이렇게 나오면 어떤 경우였습니까?

00:41:26.268 --> 00:41:30.702

생략된 주어가 있든지 아니면 중복된  
주어가 있든지, 이런 것이었죠.

00:41:30.802 --> 00:41:36.572

이런 문장 형태는 당연히  
이제 특별한 그것 때문에,

00:41:36.672 --> 00:41:40.004

주어 개수가 서술어 개수보다  
적기 때문에 무슨 문장이다.

00:41:40.104 --> 00:41:41.288

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.

00:41:41.388 --> 00:41:43.102

그런데 애는 좀 반대예요.

00:41:43.202 --> 00:41:46.265

주어가 서술어보다 많아.  
보이십니까?

00:41:46.365 --> 00:41:48.326

주어가 서술어보다 많아.

00:41:48.426 --> 00:41:53.264

이렇게 되면 서술절을 안은  
문장의 힌트가 나오는 거예요.

00:41:53.364 --> 00:41:59.035

서술절이 될 수 있는  
것은 주어의 개수가

00:41:59.135 --> 00:42:03.231

서술어의 개수보다 많다는 얘기고.

00:42:03.331 --> 00:42:05.350

이걸로 따지셔야 됩니다.

00:42:05.450 --> 00:42:07.638

주어의 개수가 서술어의  
개수보다 많다는 얘기고,

00:42:07.738 --> 00:42:10.548

그렇다면 지금 어떤  
절이 어떤 주어의

00:42:10.648 --> 00:42:13.251

서술어 역할하는  
절이구나라는 겁니다.

00:42:13.351 --> 00:42:14.669  
이런 식으로요.

00:42:14.769 --> 00:42:16.056  
밑에도 문장 볼까요?

00:42:16.156 --> 00:42:18.333  
서술어 뭐 있습니까? 고프냐.

00:42:18.433 --> 00:42:19.569  
뭐가 고프는 거죠?

00:42:19.669 --> 00:42:21.314  
배가 고프냐, 이렇게 되는 거죠.

00:42:21.414 --> 00:42:23.223  
그런데 이것도 주어잖아요.

00:42:23.323 --> 00:42:25.552  
너가, 도는 보조사일 뿐이죠.

00:42:25.652 --> 00:42:26.797  
너가 배가 고프냐?

00:42:26.897 --> 00:42:29.618  
그러면 이것도 지금 주어거든.

00:42:29.718 --> 00:42:31.354  
그럼 이게 뭐다?

00:42:31.454 --> 00:42:35.970  
배가 고프냐가 전체 주어의  
서술절의 기능을 하는 거죠.

00:42:36.070 --> 00:42:37.221  
밑에.

00:42:37.321 --> 00:42:38.672  
좋으시다 서술어.

00:42:38.772 --> 00:42:40.253  
아버지가 좋은 게 아니에요,  
눈이 좋은 거예요.

00:42:40.353 --> 00:42:43.357  
애가 주어.

00:42:43.457 --> 00:42:46.942  
안겨 있는데 주어가 또 나왔죠.

00:42:47.042 --> 00:42:49.023  
아버지라는 주어가 남아 있습니다.

00:42:49.123 --> 00:42:52.554  
그러면 애는 서술절을 역할을  
하고 있다는 얘기죠.

00:42:52.654 --> 00:42:53.957

좀 간단한 표현입니다.

00:42:54.057 --> 00:42:56.260

밑에 있는 문장은  
어떻게 처리될까요?

00:42:56.360 --> 00:43:03.680

서술어 가볼까요?  
서술어 있다.

00:43:03.780 --> 00:43:13.434

주어는요? 감자가.

00:43:13.534 --> 00:43:18.465

세 박스나 어떻게  
하죠, 세 박스나?

00:43:18.565 --> 00:43:20.411

그럼 홀문장입니까?

00:43:20.511 --> 00:43:23.257

세 박스나의 문장 성분 뭐예요?

00:43:23.357 --> 00:43:28.449

여기에서의 는이, 도가, 는이  
보조사로 이나 가가 와야 될

00:43:28.549 --> 00:43:32.576

자리였다고 한다면 이것도 사실은  
세 박스가 있다 아닙니까?

00:43:32.676 --> 00:43:33.849

가 있다.

00:43:33.949 --> 00:43:37.491

그 가가 올 자리에 보조사를 넣어줬을  
뿐이에요, 이거 지금, 그렇죠?

00:43:37.591 --> 00:43:39.138

나라고 하는 보조사.

00:43:39.238 --> 00:43:41.137

감자나 있다 이럴 수도  
있는 거고, 그렇죠?

00:43:41.237 --> 00:43:43.627

그래서 세 박스가 있다가  
와야 될 자리이므로

00:43:43.727 --> 00:43:46.606

애도 지금 주어예요,  
여러분, 주어.

00:43:46.706 --> 00:43:50.645

그런데 위에 있는 세 문장하고  
사실 문법적 차이가 조금 납니다.

00:43:50.745 --> 00:43:51.877

잘 보세요.

00:43:51.977 --> 00:43:52.943

짧아요.

00:43:53.043 --> 00:43:54.973

토끼는 짧아요, 여러분?  
토끼는 짧아요?

00:43:55.073 --> 00:43:57.411

토끼가 짧은 게 아니야,  
앞발이 짧은 거야.

00:43:57.511 --> 00:43:59.184

보세요.  
너가 고파요?

00:43:59.284 --> 00:44:01.735

고프다는 항상 뭐를  
주어로 잡아야 돼요?

00:44:01.835 --> 00:44:04.005

배, 배가 주어여야죠.

00:44:04.105 --> 00:44:05.690

너가 고파냐?

00:44:05.790 --> 00:44:06.991

아니예요, 그렇게 쓸 수 없어요.

00:44:07.091 --> 00:44:08.702

그러면 애의 주어가  
반드시 이겁니다.

00:44:08.802 --> 00:44:10.223

아버지는 좋으시다.

00:44:10.323 --> 00:44:11.653

아버지 성격이 좋다는  
얘기, 아니예요.

00:44:11.753 --> 00:44:14.453

눈이 좋으시다, 반드시  
직접 주어가 있어야 돼요.

00:44:14.553 --> 00:44:15.613

그런데 보세요.

00:44:15.713 --> 00:44:17.696

있어요, 뭐가 있어요?

00:44:17.796 --> 00:44:20.926

감자가 있어요, 세 박스가 있어요.

00:44:21.026 --> 00:44:24.574

이런 형태는 위에 있는  
예들하고는 조금 차이가 나요.

00:44:24.674 --> 00:44:28.423

즉, 애가, 서술어가 애를 주어로도  
테리고 올 수 있다는 측면에서

00:44:28.523 --> 00:44:31.933

위에 있는 문장의 구조와 주어,

주어, 서술어의 구성.

00:44:32.033 --> 00:44:35.092

주어 두 개, 서술어 하나라는  
형태는 동일한데 말이죠.

00:44:35.192 --> 00:44:38.046

그래서 이걸 가지고 판단할  
때 문법적 개념으로

00:44:38.146 --> 00:44:48.659

애네와 좀 달리 이런 걸  
특정지어서 이중 주어 구문이라는

00:44:48.759 --> 00:44:50.190

설명을 하기도 해요.

00:44:50.290 --> 00:44:55.270

만약 문제로, 문제로 이  
예와 이 예를 주고 나서

00:44:55.370 --> 00:44:58.347

구분하는 설명을 했을 때면  
제가 지금 말씀드린 방식.

00:44:58.447 --> 00:45:02.016

즉, 이 서술어의 직접 주어가  
가능한지를 따져보시면 됩니다.

00:45:02.116 --> 00:45:04.484

그런데 안 된다는 거예요.

00:45:04.584 --> 00:45:06.967

안 된다는 거죠.

00:45:07.067 --> 00:45:11.199

그러면 이런 형태로 되어 있는  
걸 이중 주어 구문으로 보면서

00:45:11.299 --> 00:45:13.649

안은 문장 관계로 보지 않는.

00:45:13.749 --> 00:45:16.931

즉, 애는 홑문장 개념으로,  
주어의 서술어, 주어의 서술어

00:45:17.031 --> 00:45:20.782

그냥 대응하는 거 두 개를 같이  
붙여주는 홑문장으로 처리하는.

00:45:20.882 --> 00:45:23.730

홑문장으로 처리하는 거 아니죠.

00:45:23.830 --> 00:45:26.038

홑문장으로 처리하는 건  
아니고요, 다시 말씀드립니다.

00:45:26.138 --> 00:45:28.603

애는 어쨌든 서술절을 안은  
문장은 아닌 거로 처리하는

00:45:28.703 --> 00:45:33.475  
그런 방식이 하나 있고, 학교  
문법에서는 별다른 설명이 없잖아요.

00:45:33.575 --> 00:45:37.240  
그러면 일단 주어, 주어, 서술어  
나왔으면 이걸 서술절이야.

00:45:37.340 --> 00:45:38.670  
이렇게 해석하기도 해요.

00:45:38.770 --> 00:45:42.308  
그래서 두 가지.

00:45:45.438 --> 00:45:50.019  
이 두 가지의 형태를 다  
인정해준다는 거 알아두시고.

00:45:50.119 --> 00:45:52.609  
만약 이걸 구분짓는 문제가  
나온다면 조금 차이,

00:45:52.709 --> 00:45:55.717  
서술어의 직접 주어가 가능한지를  
따져보시면 됩니다.

00:45:55.817 --> 00:45:59.429  
하나 더 예를 들면.

00:45:59.529 --> 00:46:03.129  
이런 것도,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.

00:46:05.470 --> 00:46:07.735  
예를 들면 이런 거죠.

00:46:07.835 --> 00:46:25.507  
해바라기가 색깔이 노랗다.

00:46:29.280 --> 00:46:31.748  
이런 문장도 마찬가지로요.

00:46:31.848 --> 00:46:35.646  
해바라기가 색깔이 노랗다 이렇게  
나가면 주어, 주어, 서술어잖아요.

00:46:35.746 --> 00:46:40.045  
주어, 주어, 서술어, 그렇죠?

00:46:40.145 --> 00:46:42.694  
그런데 해바라기가  
노랗다가 가능하거든요.

00:46:42.794 --> 00:46:45.316  
그러니까 이걸 이제 이중 주어  
구문이라고 볼 수 있고.

00:46:45.416 --> 00:46:49.448  
이럴 때는 해바라기의  
색깔로 보는 게 어때냐.

00:46:49.548 --> 00:46:53.632

그래서 논란이 되는 건 이런  
거는 가가 의를 보조해주는

00:46:53.732 --> 00:46:55.306  
보조사로 보면 안 돼?

00:46:55.406 --> 00:46:56.423  
이런 해석도 있어요.

00:46:56.523 --> 00:46:58.189  
그런데 그런 것까지  
내기는 어렵습니다.

00:46:58.289 --> 00:47:01.297  
이런 형태나 이런 감자가 세  
박스,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.

00:47:01.397 --> 00:47:04.480  
감자 세 박스 아니면  
감자가 세 박스 해서

00:47:04.580 --> 00:47:08.778  
가를 둘 중 없애도 된다는 측면에서  
이런 것들 그냥 하나의 주어로

00:47:08.878 --> 00:47:10.279  
보자는 입장도 있어요.

00:47:10.379 --> 00:47:12.521  
그러니까 논란이 될 만한  
문장은 이런 문장이지

00:47:12.621 --> 00:47:14.258  
이런 것들은 논란될 수 없습니다.

00:47:14.358 --> 00:47:17.904  
어쨌든 출제가 될 때는 어지간하면  
밑에 거로 가는 편이에요.

00:47:18.004 --> 00:47:19.531  
이런 것조차도.

00:47:19.631 --> 00:47:22.417  
그러니까 구조를 봤을 때 이런  
구조, 우리가 학교 문법에서는

00:47:22.517 --> 00:47:24.525  
서술절 안은 문장으로  
주로 처리한다는 겁니다.

00:47:24.625 --> 00:47:27.420  
진짜 주의해야 되는  
건 이 문장이예요.

00:47:27.520 --> 00:47:28.960  
볼까요?

00:47:29.060 --> 00:47:30.105  
아무 생각 없잖아요.

00:47:30.205 --> 00:47:34.631

서술어, 주어, 주어,  
서술절 안은 문장.

00:47:34.731 --> 00:47:37.072  
망하는 거야.

00:47:41.336 --> 00:47:43.839  
되다, 아니다.

00:47:43.939 --> 00:47:45.888  
보어. 맞죠?

00:47:45.988 --> 00:47:48.308  
즉, 주어 하나, 서술어 하나.

00:47:48.408 --> 00:47:51.372  
애는 주어 아니니까 홀문장이어야죠.

00:47:51.472 --> 00:47:53.559  
애는 서술절 아닙니다.

00:47:53.659 --> 00:47:56.414  
이런 거를 여러분 주의하셔야  
돼요, 아시겠죠?

00:47:56.514 --> 00:48:00.245  
그래서 애는 주어 하나,  
서술어 하나, 홀문장.

00:48:00.345 --> 00:48:06.120  
즉, 서술어로 되다나 아니다가  
왔을 때 신경 잘 쓰셔야 됩니다.

00:48:06.220 --> 00:48:07.510  
신경 잘 쓰셔야 돼요.

00:48:07.610 --> 00:48:08.848  
보어가 필요해요, 그때는.

00:48:08.948 --> 00:48:10.165  
다음 가봅시다.

00:48:10.265 --> 00:48:17.149  
인용절을 안은 문장.

00:48:17.249 --> 00:48:25.730  
인용절을 안은 문장의 힌트는 훨씬  
더 간단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.

00:48:25.830 --> 00:48:29.005  
일단 기본적으로 뭐가 들어가  
있다는 걸 볼 수 있죠?

00:48:29.105 --> 00:48:31.176  
라고, 고.

00:48:31.276 --> 00:48:42.989  
즉, 직접 인용의 부사격 조사인,  
간접 인용의 부사격 조사인

00:48:43.089 --> 00:48:47.125

라고와 고가 사용됐는지를  
확인하시면 되는 거예요.

00:48:47.225 --> 00:48:48.825  
이거로 끝난 거죠.

00:48:48.925 --> 00:48:54.113  
물론 추가적으로 하다의  
활용형인 하고의 형태.

00:48:54.213 --> 00:49:00.137  
이것도 좀 챙겨보시면 되겠고요.

00:49:00.237 --> 00:49:03.000  
이게 인용절을 만들어 줄 수  
있는 힌트가 되겠습니다.

00:49:03.100 --> 00:49:05.770  
그러면 볼게요.

00:49:05.870 --> 00:49:11.631  
직접 인용의 형태가 되려면 무조건  
이렇게 있어야 되겠죠, 대사가.

00:49:11.731 --> 00:49:14.254  
그러니까 직접 인용에 따옴표,  
큰따옴표가 잡혔습니다.

00:49:14.354 --> 00:49:17.922  
교수님께서 하셨다라고 하는,  
교수님께서 하셨다.

00:49:18.022 --> 00:49:21.679  
말씀하셨다 서술어,  
주어가 되는 거고요.

00:49:21.779 --> 00:49:25.734  
이 문장 안에 여러분은이라는  
생략된 주어가 있겠죠.

00:49:25.834 --> 00:49:30.293  
여러분은 제출하세요.

00:49:33.779 --> 00:49:35.655  
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.

00:49:35.755 --> 00:49:37.343  
즉, 안은 문장이죠, 안은 문장.

00:49:37.443 --> 00:49:39.682  
그런데 인용되어 안졌기 때문에

00:49:39.782 --> 00:49:41.726  
이걸 우리는 인용절을 안은  
문장이라고 처리하게 됩니다.

00:49:41.826 --> 00:49:43.219  
여기도 마찬가지로요.

00:49:43.319 --> 00:49:45.435  
서술어 그리고 교수님께서

주어진 거 똑같아요.

00:49:45.535 --> 00:49:47.913  
위에 있는 걸 간접으로 푼 겁니다.

00:49:48.013 --> 00:49:50.491  
내일까지 제출하라고 하셨다.

00:49:50.591 --> 00:49:53.738  
우리들이 같은 게 또 생략되어  
있다고 보시면 됩니다.

00:49:53.838 --> 00:49:55.083  
구조가 같죠, 뭐.

00:49:55.183 --> 00:49:57.390  
편하게 라고, 고를  
찾으시면 되는 겁니다.

00:49:57.490 --> 00:50:01.268  
이런 거 자꾸 이거를 라고를  
찾으시면 안 돼요.

00:50:01.368 --> 00:50:03.832  
이게 라고가 아니라, 직접  
인용일 때만 라고이고,

00:50:03.932 --> 00:50:05.769  
간접 인용일 때는 고가 되는 거고.

00:50:05.869 --> 00:50:07.558  
여기까지는 어미라고 봐야죠.

00:50:07.658 --> 00:50:09.242  
하라 하면 이게 어미입니다.

00:50:09.342 --> 00:50:12.804  
이건 인용 표현에서 조금  
더 자세하게 공부할게요.

00:50:12.904 --> 00:50:14.171  
여기도 마찬가지로.

00:50:14.271 --> 00:50:18.019  
진우는 내가 먹어도 돼라고 물어봤다  
할 때의 이 라고를 통해서

00:50:18.119 --> 00:50:19.482  
직접 인용한 겁니다.

00:50:19.582 --> 00:50:22.005  
그래서 서술어,  
그다음에 주어가 되죠.

00:50:22.105 --> 00:50:23.938  
물어봤다, 진우는.

00:50:24.038 --> 00:50:25.849  
돼, 먹어도 돼? 내가?

00:50:25.949 --> 00:50:27.946

주어, 서술어 이렇게 되는 거죠.

00:50:28.046 --> 00:50:31.034

여기 문장에도 보면 물어봤다  
서술어, 진우는이 주어인데.

00:50:31.134 --> 00:50:32.780

간접 인용은 풀렸어요.

00:50:32.880 --> 00:50:34.449

그런데 풀리면서 좀 변화가 생겨요.

00:50:34.549 --> 00:50:37.815

진우는 내가 먹어도 되고  
이렇게 할 수 없죠.

00:50:37.915 --> 00:50:40.691

진우는, 이런 거  
재귀대명사 기억하십니까?

00:50:40.791 --> 00:50:45.185

3인칭 나왔던 걸 다시 반복하기  
싫으니까 자기라는 말 쓰죠.

00:50:45.285 --> 00:50:47.360

그래서 진우는 자기가  
먹어도 되냐고.

00:50:47.460 --> 00:50:51.558

형태가 지금 어미의 형태가  
조금 변화가 있죠.

00:50:51.658 --> 00:50:55.163

명령형 어미냐 아니면 의문형  
어미냐 조금 차이가 날 겁니다.

00:50:55.263 --> 00:50:56.477

간접 인용 풀릴 때는.

00:50:56.577 --> 00:50:59.642

그런 거는 우리가 인용 표현  
할 때 배우도록 하고요.

00:50:59.742 --> 00:51:01.536

쉽게 나올 수 있어요, 이렇게.

00:51:01.636 --> 00:51:04.339

그런데 하교의 경우도  
있으니 좀 주의하세요.

00:51:04.439 --> 00:51:07.937

이것도 인용절로 봐줍니다.

00:51:08.037 --> 00:51:08.877

서술어 어디 있다?

00:51:08.977 --> 00:51:09.953

소리쳤다.

00:51:10.053 --> 00:51:13.161

누가 소리쳤다? 보초는 소리쳤죠.

00:51:13.261 --> 00:51:16.227  
그리고 손 들어, 서술어입니다.

00:51:16.327 --> 00:51:18.766  
서술어, 손 들어, 손을 들어.

00:51:18.866 --> 00:51:20.309  
누가? 너는, 너는.

00:51:20.409 --> 00:51:21.405  
이게 주어가 되겠죠.

00:51:21.505 --> 00:51:25.331  
너는 손을 들어 이렇게 했는데 이  
문장, 이 문장이 지금 안겨 있는데.

00:51:25.431 --> 00:51:29.136  
라고 소리쳤다고 해도 되는 건데  
이걸 하교로 바꾼 거예요.

00:51:29.236 --> 00:51:32.391  
그러면 잘 보셔야 되는 게  
라고의 경우에는, 보세요.

00:51:32.491 --> 00:51:36.788  
앞에 있는 따옴표 뒤에 붙어  
쓰여 있는 걸 볼 수 있어요.

00:51:36.888 --> 00:51:38.237  
딱 붙어 쓰여 있습니다.

00:51:38.337 --> 00:51:40.450  
그런데 이 하교는 차이 보이나요?

00:51:40.550 --> 00:51:41.436  
살짝 떨어져 있죠, 이렇게.

00:51:41.536 --> 00:51:42.748  
떨어져 있습니다.

00:51:42.848 --> 00:51:43.955  
이 차이가 뭐죠?

00:51:44.055 --> 00:51:46.525  
라고나 고의 경우에는 조사, 조사.

00:51:46.625 --> 00:51:49.548  
인용 부사격 조사이기 때문에  
딱 붙었어야 되는 거지만,

00:51:49.648 --> 00:51:52.051  
이 하교는 조사가 아니에요.

00:51:52.151 --> 00:51:55.124  
즉, 하다라고 하는 동사의  
활용형일 뿐입니다.

00:51:55.224 --> 00:51:58.658  
그러니 앞 단어와 띄어 써준다는  
조건에 맞춰야 되겠죠.

00:51:58.758 --> 00:52:00.319  
그래서 이렇게 띄어 쓰는 건데.

00:52:00.419 --> 00:52:03.093  
이때 역시도 어쨌든  
라고처럼 쓰인 거니까

00:52:03.193 --> 00:52:06.931  
이걸 인용절을 안은  
문장이라고는 인정하게 됩니다.

00:52:07.031 --> 00:52:09.759  
그래서 구성상 이 형태도  
봐줘야 되겠고요.

00:52:09.859 --> 00:52:12.033  
이렇게 해서 우리는  
명사절을 안은 문장,

00:52:12.133 --> 00:52:16.568  
관형절을 안은 문장, 부사절을  
안은 문장, 서술절을 안은 문장

00:52:16.668 --> 00:52:20.683  
그리고 인용절을 안은 문장까지  
안은 문장은 다 처리했습니다.

00:52:20.783 --> 00:52:23.406  
그다음 이어진 문장으로  
넘어갈 텐데.

00:52:23.506 --> 00:52:26.055  
이어진 문장에는 크게  
두 가지가 있다고 했죠.

00:52:26.155 --> 00:52:32.745  
대등하게 이어진 문장이랑  
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입니다.

00:52:32.845 --> 00:52:36.926  
이거는 이렇게 공부하도록 합시다.

00:52:43.615 --> 00:52:49.865  
이 대등하다랑 종속적으로라는 표현이  
의미하는 바가 있을 거 아니에요.

00:52:49.965 --> 00:52:54.058  
지금 보면 구조 자체가  
주어 그리고 서술어.

00:52:54.158 --> 00:52:58.737  
그다음에 뒤에 나와 있는 후행절에  
주어 그리고 서술어가 있는데.

00:52:58.837 --> 00:53:01.485  
이게 지금 두 문장이 이렇게  
자연스럽게 이어져 있대요.

00:53:01.585 --> 00:53:09.536  
이어져 있을 때 뭐가 필요하냐면 이

서술어에 당연히 어간 부분이 있고,

00:53:09.636 --> 00:53:12.809  
그다음에 어미 부분이 있을 텐데.

00:53:12.909 --> 00:53:16.658  
이 어미가 무슨 어미냐면 연결어미가  
돼요, 이놈이 연결어미.

00:53:16.758 --> 00:53:18.455  
그래야 문장이 이어지니까.

00:53:18.555 --> 00:53:21.376  
그래서 연결해주는 어미가 필요한데.

00:53:21.476 --> 00:53:26.225  
이거를 가지고 우리가 두 문장의 관계를  
이미 짐작할 수 있다는 겁니다.

00:53:26.325 --> 00:53:29.582  
그래서 우리가 이어진 문장일 때  
이렇게 사선을 그어주면 될 텐데.

00:53:29.682 --> 00:53:32.827  
여기에 있는 이  
서술어에 이어진 문장.

00:53:32.927 --> 00:53:36.217  
이 서술어, 선행절의 서술어의  
연결어미를 가지고 판단하세요.

00:53:36.317 --> 00:53:39.018  
그러면 대등이냐 종속이냐를  
알 수 있습니다.

00:53:39.118 --> 00:53:44.511  
대등은 앞절과, 선행절과  
후행절의 관계가 대등한 관계.

00:53:44.611 --> 00:53:48.306  
즉, 독립적인 느낌이 좀 들어요.

00:53:48.406 --> 00:53:52.173  
그런데 종속적이라고 하는  
것은 앞문장 앞절에 의해서

00:53:52.273 --> 00:53:54.537  
후행절이 발생하는 경우들.

00:53:54.637 --> 00:53:57.415  
앞절과 관련돼서 후행절이  
나오게 되는 거.

00:53:57.515 --> 00:53:59.474  
시간적 선후 관계가 잡힌다든지.

00:53:59.574 --> 00:54:00.691  
이런 걸 얘기합니다.

00:54:00.791 --> 00:54:04.675  
그런데 문제는 뭐냐면

느낌을 잘 못 찾아요.

00:54:04.775 --> 00:54:06.451  
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인가?

00:54:06.551 --> 00:54:07.915  
이 정도면 대등.

00:54:08.015 --> 00:54:10.478  
이런 느낌을 찾기가 쉽지  
않습니다, 생각보다.

00:54:10.578 --> 00:54:17.057  
그래서 좋은 건 방법은 우리  
교과서에서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을

00:54:17.157 --> 00:54:23.392  
만들어주는 이 연결어미를 예를 드는  
걸 5개에서 6개까지 잡아요.

00:54:23.492 --> 00:54:25.447  
일단 이거 외우세요. 왜?

00:54:25.547 --> 00:54:30.584  
굉장히 많은 어미들이 이것이  
아닌 종속으로 가버리거든요.

00:54:30.684 --> 00:54:32.515  
이걸 뭐하러 외워?

00:54:32.615 --> 00:54:35.447  
그리고 이중에 몇  
개든 대등 같은데요,

00:54:35.547 --> 00:54:37.249  
이렇게 저한테 반문하는 게 있어요.

00:54:37.349 --> 00:54:38.521  
제가 정했습니까?

00:54:38.621 --> 00:54:40.824  
아니에요, 정해져  
있는 거예요, 이미.

00:54:40.924 --> 00:54:43.608  
그것이 앞에 있는 것과  
뒤에 있는 것의 관계가

00:54:43.708 --> 00:54:45.111  
그렇게 만들어졌다는 겁니다.

00:54:45.211 --> 00:54:48.905  
그래서 이 많은 걸 여러분이  
외우는 건 의미가 없어.

00:54:49.005 --> 00:54:51.926  
그냥 뭐만 발견하면 되냐면  
어간과 어미를 구분해서

00:54:52.026 --> 00:54:54.659  
이놈 연결어미 맞네만

확인할 줄 알면 돼.

00:54:54.759 --> 00:54:57.601

그럼 이 6개가 아닌 건  
다 이쪽으로 넘기라고요.

00:54:57.701 --> 00:54:58.725

6개 씩입니다.

00:54:58.825 --> 00:55:01.823

6개는, 가보죠.

00:55:01.923 --> 00:55:03.843

6개예요, 이게 6개.

00:55:03.943 --> 00:55:05.233

어미 한번 찾아보겠습니까?

00:55:05.333 --> 00:55:09.114

문장들 지금 이어져  
있는 거 볼 수 있죠.

00:55:13.424 --> 00:55:15.167

이런 부분이에요.

00:55:15.267 --> 00:55:19.671

이건 목적어죠, 떡볶이를이니까.

00:55:19.771 --> 00:55:21.546

주어, 목적어입니다.

00:55:21.646 --> 00:55:23.811

다시요, 주어, 서술어입니다.

00:55:23.911 --> 00:55:24.852

써야겠다.

00:55:24.952 --> 00:55:26.347

외국인이 먹어요.

00:55:26.447 --> 00:55:27.921

그다음에 순대도 먹어요.

00:55:28.021 --> 00:55:29.609

이거 목적어고, 순대도  
먹다 서술어죠.

00:55:29.709 --> 00:55:33.581

주어는 중복인데, 여기 있다고 생각해주면 돼요.  
알겠죠?

00:55:33.681 --> 00:55:36.762

외국인이 떡볶이도 먹고,  
외국인이 순대도 먹는 거예요.

00:55:36.862 --> 00:55:38.629

중복이니까 생략입니다.

00:55:38.729 --> 00:55:40.780

다음, 어머니께서 노래를 부르며.

00:55:40.880 --> 00:55:42.888  
주어, 서술어.

00:55:42.988 --> 00:55:46.265  
바느질을 하셨다, 서술어인데  
역시 어머니께서 노래를 부르며

00:55:46.365 --> 00:55:47.759  
어머니께서 바느질을 했다.

00:55:47.859 --> 00:55:49.732  
중복할 필요 없으니까  
뺀 거예요, 그냥.

00:55:49.832 --> 00:55:52.492  
다음, 김 대리는 성격은  
좋으나라고 했어요.

00:55:52.592 --> 00:55:53.753  
성격이 좋다.

00:55:53.853 --> 00:55:55.563  
애는 지금 안긴 게  
서술절 안겨 있죠.

00:55:55.663 --> 00:55:56.929  
김 대리가 성격이 좋다.

00:55:57.029 --> 00:55:58.938  
아시겠어요?  
주어, 주어, 서술어니까.

00:55:59.038 --> 00:56:01.712  
이게 지금 안겨 있는  
거예요, 이렇게.

00:56:01.812 --> 00:56:06.660  
즉, 앞에 절 안에 절이 또 안겨  
있는 그런 구조가 되는 거죠.

00:56:06.760 --> 00:56:10.041  
그런데 이제 앞에 절과 뒤에 절의  
전체적 관계를 따져보게 되면

00:56:10.141 --> 00:56:10.570  
그럼 보세요.

00:56:10.570 --> 00:56:13.018  
성격이 좋다가 서술절  
역할을 했잖아요, 애가.

00:56:13.118 --> 00:56:14.879  
그리고 애가 지금  
주어고, 맞습니까?

00:56:14.979 --> 00:56:18.728  
그다음에 일 처리가 미속하다라고  
하는 게 일 처리가 주어,

00:56:18.828 --> 00:56:21.472  
미속하다가 서술어잖아요.

이해되십니까?

00:56:21.572 --> 00:56:24.483

두 개의 문장 형태가 이어져  
있는 건 맞단 말이에요.

00:56:24.583 --> 00:56:27.256

그러면 이어진 문장 만들어줬고요.

00:56:27.356 --> 00:56:31.524

다음에 이혼은 자랑할 건  
아니지만, 아니다 서술어.

00:56:31.624 --> 00:56:34.673

자랑할 것이라고 하는 이  
부분이 뭐가 돼요?

00:56:34.773 --> 00:56:36.304

보어예요, 보어.

00:56:36.404 --> 00:56:37.669

아니다가 나왔으니까.

00:56:37.769 --> 00:56:39.861

아니다는 주어 말고  
뭐가 더 필요하냐?

00:56:39.961 --> 00:56:40.951

보어가 더 필요해요.

00:56:41.051 --> 00:56:44.712

그래서 이런 놈들 자랑할 것이  
생략되어 있는 구조이고,

00:56:44.812 --> 00:56:46.391

이거는 지금 보어로 잡혀야 됩니다.

00:56:46.491 --> 00:56:49.841

그리고 주어는 이혼이가  
되는 거죠, 이게 주어죠.

00:56:49.941 --> 00:56:52.382

주어, 서술어입니다.

00:56:52.482 --> 00:56:54.505

다음, 이혼이 또 생략되어 있어요.

00:56:54.605 --> 00:56:56.488

부끄러워 할 것도,  
이게 지금 뭐예요?

00:56:56.588 --> 00:56:58.122

보어가 돼요, 보어.

00:56:58.222 --> 00:56:59.257

이게 보어입니다.

00:56:59.357 --> 00:57:00.486

부끄러워할 것이  
이러면서 보어입니다.

00:57:00.586 --> 00:57:02.182

다음, 아니다가 나왔어요.

00:57:02.282 --> 00:57:03.529

이게 지금 서술어가 나왔잖아요.

00:57:03.629 --> 00:57:08.192

그러면 지금 이혼이 ~가 아니다,  
이혼은 ~가 아니다 하면서

00:57:08.292 --> 00:57:10.138

이제 주어, 서술어, 주어, 서술어가  
두 개가 이어져 있는 구조예요.

00:57:10.238 --> 00:57:15.437

그러니까 이어진 문장 안에  
안겨 있는 거는 일단 다음에

00:57:15.537 --> 00:57:16.912

해석하면 되는 거고,  
이런 것들은, 그렇죠?

00:57:17.012 --> 00:57:21.651

우선 기본적인 틀 안에서 전체적인  
게 이렇게 이어져 있는 건

00:57:21.751 --> 00:57:22.771

연결이 됩니다.

00:57:22.871 --> 00:57:23.873

마찬가지예요.

00:57:23.973 --> 00:57:29.111

그러면 여기에서 연결어미들을  
따져보시면 뭐냐.

00:57:29.211 --> 00:57:33.480

고, 딱다에서 다 대신  
고, 연결어미 고.

00:57:33.580 --> 00:57:37.338

그다음에 부르다에서  
연결어미 떠가 되죠.

00:57:37.438 --> 00:57:39.874

좋다에서 연결어미 으나죠.

00:57:39.974 --> 00:57:42.750

다음, 아니다에서  
연결어미 지만이죠.

00:57:42.850 --> 00:57:48.127

짱이다, 서술격 조사  
이다에다 이거나가 붙었어요.

00:57:48.227 --> 00:57:52.617

다음에 죽다, 다 대신에  
죽든지 붙어 있습니다.

00:57:52.717 --> 00:57:54.238

이 6개예요.

00:57:54.338 --> 00:58:01.530  
정리를 하면 이 연결어미가 앞에  
것과 뒤에 것들을 열거해주는 기능.

00:58:01.630 --> 00:58:04.296  
그냥 대등의 기능을  
해주고 있는 거죠.

00:58:04.396 --> 00:58:06.640  
들을 그냥 이렇게 나열,  
나열의 기능이에요, 나열.

00:58:06.740 --> 00:58:10.487  
나열의 기능을 해주는 거로  
두 개를 제시합니다.

00:58:10.587 --> 00:58:14.454  
우리 교과서들을 따져봐도  
~하고라는 거 있고요.

00:58:14.554 --> 00:58:16.246  
그다음 ~으며.

00:58:16.346 --> 00:58:20.546  
이때의 으는 매개모음이기 때문에 올  
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죠.

00:58:20.646 --> 00:58:23.235  
받침 있는 단어, 없는  
단어만 구분하면 됩니다.

00:58:23.335 --> 00:58:24.374  
고, 으며.

00:58:24.474 --> 00:58:27.710  
그다음에 서로 간에 반대  
개념이에요, 상반 개념입니다.

00:58:27.810 --> 00:58:31.432  
역접, 상반 개념이에요.

00:58:31.532 --> 00:58:37.516  
개념으로 ~지만, ~으나.

00:58:37.616 --> 00:58:42.303  
역시나 ~으나,  
매개모음 으가 있고요.

00:58:42.403 --> 00:58:44.227  
그래서 ~나, ~으나  
이렇게 되는 겁니다.

00:58:44.327 --> 00:58:47.628  
그리고 마지막 열거예요, 열거.

00:58:47.728 --> 00:58:52.831  
선택 개념.

00:58:52.931 --> 00:58:54.749  
선택 개념이에요, 선택 개념.

00:58:54.849 --> 00:58:59.002  
뭐가 나왔습니까? ~거나.

00:58:59.102 --> 00:59:01.244  
그런데 이제 듣지를 먼저 쓸게요.

00:59:01.344 --> 00:59:03.198  
듣지, 그다음에 거나인데.

00:59:03.298 --> 00:59:07.280  
선생님이 5에서 6이라고  
했던 건 특정 교과서에 보면

00:59:07.380 --> 00:59:09.896  
이거는 지금 빠져 있는 상태예요.

00:59:09.996 --> 00:59:13.182  
빠져 있는데 쓰면 안 되는  
게 아니라 써도 돼요.

00:59:13.282 --> 00:59:17.059  
그래서 학교 문법상에서 우리  
교과서 범위 내에 있는 게

00:59:17.159 --> 00:59:20.631  
이 6개 내지 5개  
정도를 잡아주는데.

00:59:20.731 --> 00:59:25.281  
대등하게 이어진 문장을 만들어주는  
연결어미가 그러면 딱 애만이나.

00:59:25.381 --> 00:59:26.293  
우선 아니고요.

00:59:26.393 --> 00:59:27.260  
더 있어요.

00:59:27.360 --> 00:59:29.623  
더 있고, 더 있는  
걸 외워야 하느냐?

00:59:29.723 --> 00:59:30.856  
아니, 거기까지 안 가도 돼요.

00:59:30.956 --> 00:59:32.419  
거기까지 안 가도 되고.

00:59:32.519 --> 00:59:34.926  
두 번째, 그럼 애네는  
무조건 대등이라는 말이냐?

00:59:35.026 --> 00:59:36.118  
그것도 아니야.

00:59:36.218 --> 00:59:39.006  
그래서 한번 볼게요.

00:59:39.106 --> 00:59:43.875  
이해를 한번 해봅시다, 우리는.

00:59:47.582 --> 00:59:49.470

우선 보세요.

00:59:49.570 --> 00:59:54.316

외국인이 떡볶이도 먹었고  
순대도 먹었어요.

00:59:54.416 --> 00:59:56.134

순대도 먹고 떡볶이도 먹었어요.

00:59:56.234 --> 00:59:58.607

이 두 개가 떡볶이 먹는  
거랑 순대 먹는 거랑

00:59:58.707 --> 01:00:00.589

위상이 대단히 다르지 않아요.

01:00:00.689 --> 01:00:02.661

그냥 뒤집어도 되고.

01:00:02.761 --> 01:00:04.445

노래를 부르며 바느질.

01:00:04.545 --> 01:00:08.069

동시에 하는 거기 때문에  
바느질을 하며 노래를 불렀다,

01:00:08.169 --> 01:00:10.542

노래를 부르며  
바느질했다, 상관없어요.

01:00:10.642 --> 01:00:11.997

같은 의미를 더해주는 거예요.

01:00:12.097 --> 01:00:13.608

둘이 힘이, 위상이 같아요.

01:00:13.708 --> 01:00:17.773

다음, 김 대리는 성격은  
좋은데 일 처리가 미숙해.

01:00:17.873 --> 01:00:19.782

하나는 긍정, 하나는 부정인데.

01:00:19.882 --> 01:00:22.739

뒤집어도 물론 약간의 느낌 차이가  
있을 수 있어요, 여러분.

01:00:22.839 --> 01:00:26.413

김 대리는 일 처리가  
미숙하지만, 성격은 좋다는 건

01:00:26.513 --> 01:00:28.822

그래도 칭찬 쪽으로 마무리  
지어주는 게 좋잖아요, 그렇죠?

01:00:28.922 --> 01:00:31.446

그런데 성격은 좋으나 일  
처리가 미숙하다는 얘기는

01:00:31.546 --> 01:00:34.958

약간 애를 좀 부정적으로 보는  
느낌이 있긴 하지만, 우리가.

01:00:35.058 --> 01:00:38.939

그러나 이 둘은 상반 개념이어서  
앞에 거랑 뒤에 있는 거랑

01:00:39.039 --> 01:00:40.979

서로 상관없어요.

01:00:41.079 --> 01:00:44.912

애 때문에, 선행절 때문에 후행절이  
만들어지는 그런 관계는 아니에요.

01:00:45.012 --> 01:00:48.596

다음, 이혼은 사랑할 것은  
아니지만 부끄러워할 것도 아니다.

01:00:48.696 --> 01:00:50.955

이혼은 부끄러워할 것 아니지만  
사랑할 것도 아니다.

01:00:51.055 --> 01:00:53.348

그러니까 둘 다 각각의  
속성을 갖고 있는 걸

01:00:53.448 --> 01:00:55.243

그냥 배치했을 뿐이에요, 이렇게.

01:00:55.343 --> 01:00:56.180

힘을 갖게.

01:00:56.280 --> 01:00:58.030

그러니까 대등적이라는  
말 쓰는 거죠.

01:00:58.130 --> 01:01:00.863

이 추침은 무조건  
꽝이거나 대박이다.

01:01:00.963 --> 01:01:03.685

대박이거나 꽝이거나 똑같은 거예요.

01:01:03.785 --> 01:01:06.395

다음, 나와 함께 떠나든지  
여기에서 얼어 죽든지.

01:01:06.495 --> 01:01:07.957

얼어 죽든지 떠나든지.

01:01:08.057 --> 01:01:09.307

똑같은 거예요, 위상이.

01:01:09.407 --> 01:01:10.571

느낌 좀 보이죠, 이게?

01:01:10.671 --> 01:01:12.249

이게 앞에 있는 절과 후행절이,

01:01:12.349 --> 01:01:14.605

선행절과 후행절이 위상이  
같다는 거예요.

01:01:14.705 --> 01:01:17.055  
대등한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.

01:01:17.155 --> 01:01:19.532  
그러면 이 고 같은 경우  
지금 대등이라고 봤잖아요.

01:01:19.632 --> 01:01:22.201  
이거에 대한 아닌 걸  
뒤에 이제 보여드리고.

01:01:22.301 --> 01:01:26.005  
우선 이어진 문장 중에서 종속적으로  
이어진 문장을 보도록 할게요.

01:01:26.105 --> 01:01:29.655  
그럼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.

01:01:29.755 --> 01:01:33.349  
애네.

01:01:33.449 --> 01:01:35.155  
끊어내야 됩니다, 우선.

01:01:35.255 --> 01:01:37.865  
끊어볼까요?

01:01:40.959 --> 01:01:45.559  
선행절과 후행절을  
끊는 거예요, 지금.

01:01:50.361 --> 01:01:51.998  
이런 부분이에요.

01:01:52.098 --> 01:01:54.071  
어미가 뭔지 찾습니다.

01:01:54.171 --> 01:01:55.875  
비가 주어, 오지 않다.

01:01:55.975 --> 01:01:58.148  
나는 모를 내지 못했다.

01:01:58.248 --> 01:02:00.614  
나는 못했다, 주어, 서술어  
생략되어 있는 나 있죠.

01:02:00.714 --> 01:02:01.916  
봄이 오다, 주어, 서술어.

01:02:02.016 --> 01:02:03.569  
그는 떠나다, 주어, 서술어.

01:02:03.669 --> 01:02:05.937  
우리가 오르려고, 주어, 서술어.

01:02:06.037 --> 01:02:07.632  
우리는 일어났다, 주어, 서술어.

01:02:07.732 --> 01:02:09.597  
비가 오다, 주어, 서술어.

01:02:09.697 --> 01:02:12.034  
나는 할 거다, 주어, 서술어.

01:02:12.134 --> 01:02:14.776  
욕심을 버릴수록인데 여기는  
주어가 생략되어 있죠.

01:02:14.876 --> 01:02:18.705  
우리는 버릴수록, 그다음에  
주어 삶이, 행복하다 서술어.

01:02:18.805 --> 01:02:23.268  
그다음에 우리는 이야기하다,  
그다음에 잠이 들다. 맞죠?

01:02:23.368 --> 01:02:25.237  
주어, 서술어, 주어,  
서술어가 이어진 거 맞죠?

01:02:25.337 --> 01:02:27.775  
그런데 여기에서 그럼  
연결어미가 뭐냐?

01:02:27.875 --> 01:02:31.101  
여기는 앞다에다 아서가 들어왔죠.

01:02:31.201 --> 01:02:34.256  
오다에 면 붙어 있죠.

01:02:34.356 --> 01:02:38.696  
오르다, 오르에다  
려고가 붙어 있죠.

01:02:38.796 --> 01:02:41.574  
오다에서 다 대신에  
뭐가 들어왔어요?

01:02:41.674 --> 01:02:44.160  
ㄹ 지라도가 붙어 있는  
거예요, ㄹ 지라도.

01:02:44.260 --> 01:02:47.842  
어미가 여러분 되게 많아요.

01:02:47.942 --> 01:02:52.111  
버리다에 ㄹ 수록이죠, 이러면.

01:02:52.211 --> 01:02:58.581  
다음, 이야기를 하다에 다  
대신에 다가가 붙어 있죠.

01:02:58.681 --> 01:03:01.885  
앞에 있는 절이 뒤에 있는  
절에 영향을 받는지 봅시다.

01:03:01.985 --> 01:03:03.710  
비가 오지 않아서 모를.

01:03:03.810 --> 01:03:06.129  
그래요, 비가 왔으면 냅죠.

01:03:06.229 --> 01:03:07.846  
애 때문에 애가 영향을 받아.

01:03:07.946 --> 01:03:09.313  
다음, 봄이 오면 떠나.

01:03:09.413 --> 01:03:10.465  
안 오면 안 떠나.

01:03:10.565 --> 01:03:12.814  
다음에 오르려고 일어나,  
안 오를 거면 안 일어나.

01:03:12.914 --> 01:03:14.677  
올지라도 할 거야.

01:03:14.777 --> 01:03:16.308  
이런 거 보면 약간.

01:03:16.408 --> 01:03:18.819  
선생님, 앞 문장이 뒷 문장에  
영향을 못 미치는 걸요?

01:03:18.919 --> 01:03:21.594  
와도 하고 안 와도  
한다는 얘기잖아요.

01:03:21.694 --> 01:03:25.279  
그러면 이렇게 따지니까 선행절이  
후행절에 영향을 못 미치는데?

01:03:25.379 --> 01:03:26.830  
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 거예요.

01:03:26.930 --> 01:03:30.609  
아니, 큰 지라도 이게 아까  
얘기했던 6개에 해당합니까?

01:03:30.709 --> 01:03:31.627  
아니잖아요.

01:03:31.727 --> 01:03:34.028  
그럼 과감하게 종속, 이렇게  
처리하면 된다고요.

01:03:34.128 --> 01:03:35.823  
욕심을 버릴수록 삶이.

01:03:35.923 --> 01:03:37.361  
이건 점점, 정도.

01:03:37.461 --> 01:03:38.892  
욕심을 버릴수록 행복한 거.

01:03:38.992 --> 01:03:39.729  
영향받잖아요, 그렇죠?

01:03:39.829 --> 01:03:41.892

밤새 이야기하다가 잠,  
이런 것도 마찬가지로.

01:03:41.992 --> 01:03:43.340

이야기하다가 잠이 들었다.

01:03:43.440 --> 01:03:44.523

이야기하다가 전환된 거잖아요.

01:03:44.623 --> 01:03:47.847

이야기하다가 잠이 들었다,  
이야기했기 때문에도 아니고,

01:03:47.947 --> 01:03:49.825

하다가 잠자는 건 따로잖아요.

01:03:49.925 --> 01:03:53.193

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야기를  
하다가 전환 개념으로 보이는

01:03:53.293 --> 01:03:55.835

이 다가를 종속으로  
처리한다는 겁니다.

01:03:55.935 --> 01:03:57.549

어쨌든 6개가 아니니까.

01:03:57.649 --> 01:04:04.080

~하고, ~하며, ~하지만, ~하거나,  
~든지, ~으나 딱 6개 외우시라고요.

01:04:04.180 --> 01:04:06.280

다음 것도 가볼게요.

01:04:06.380 --> 01:04:08.444

마지막.

01:04:08.544 --> 01:04:12.938

여기도 지금 보시면  
이어진 문장이 되겠죠.

01:04:13.038 --> 01:04:15.749

도전을 해야 결과도 생기지.

01:04:15.849 --> 01:04:19.225

학교에서 나오자마자 PC방으로  
달려갔다, 이렇게 된 겁니다.

01:04:19.325 --> 01:04:23.859

내가 도전을 하다, 결과가  
생기다 이렇게 된 겁니다.

01:04:23.959 --> 01:04:26.194

내가 나오다.

01:04:26.294 --> 01:04:30.604

그다음에 우리는 나오다, 우리는  
달려가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.

01:04:30.704 --> 01:04:32.615

그러니까 지금 주어들이  
빠져 있는데.

01:04:32.715 --> 01:04:36.038  
그럼 이제 선행절과 후행절 사이의  
연결어미 여기는 뭐예요?

01:04:36.138 --> 01:04:39.224  
도전을 하 그리고 여야죠.

01:04:39.324 --> 01:04:41.478  
도전을 하다+여야.

01:04:41.578 --> 01:04:46.096  
이렇게 해서 합쳐져서 해야가 나온  
거고, 연결어미는 여야가 되는 거고.

01:04:46.196 --> 01:04:47.988  
다음 여기는요.

01:04:48.088 --> 01:04:49.954  
어디까지가 어간입니까?

01:04:50.054 --> 01:04:54.048  
나오다에서 다 대신에 자마자가  
붙어 있네, 자마자.

01:04:54.148 --> 01:04:56.092  
이런 게 어미예요, 연결어미.

01:04:56.192 --> 01:04:57.464  
마찬가지예요.

01:04:57.564 --> 01:04:59.325  
도전을 해야 결과가 생기죠.

01:04:59.425 --> 01:05:04.050  
학교에서 나오자마자 곧바로  
달려갔다, 이렇게 되는 건데.

01:05:04.150 --> 01:05:06.146  
밑에 있는 예문 보도록 하겠습니다.

01:05:06.246 --> 01:05:10.035  
그럼 이제 기본적으로는 6개를  
외워서 개네 대등 처리하고,

01:05:10.135 --> 01:05:12.055  
나머지는 종속 처리하자라는  
걸 말씀드렸어요.

01:05:12.155 --> 01:05:13.863  
종속 워낙 많으니까, 연결 어미가.

01:05:13.963 --> 01:05:15.850  
이 문장 보겠습니다.

01:05:15.950 --> 01:05:18.963  
집에 오면, 이것도  
이어진 문장이고요.

01:05:19.063 --> 01:05:21.239  
손부터 씻고, 이어진 문장이고요.

01:05:21.339 --> 01:05:23.019  
밥을 먹어라 해서  
두 개가 걸려 있어요.

01:05:23.119 --> 01:05:27.001  
집에 오면 손부터 씻어라 이러면  
이거는 종속이 맞아요.

01:05:27.101 --> 01:05:30.484  
이때의 면은 ~하면  
씻어라, 이건 종속입니다.

01:05:30.584 --> 01:05:32.562  
그런데 이 관계 어떻습니까?

01:05:32.662 --> 01:05:34.261  
손부터 씻고 밥을 먹어라.

01:05:34.361 --> 01:05:36.643  
선생님, 여기 고  
왔어요, 고, 고.

01:05:36.743 --> 01:05:38.732  
그러니까 이거 대등입니다.

01:05:38.832 --> 01:05:40.626  
그런데 이걸 주의하셔야 돼.

01:05:40.726 --> 01:05:42.598  
여기까지는 낼 가능성이 있어요.

01:05:42.698 --> 01:05:44.308  
대등이 아니야.

01:05:44.408 --> 01:05:46.374  
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.

01:05:46.474 --> 01:05:50.102  
일단 6가지가 아니면  
종속이라고 제가 말씀드린 게

01:05:50.202 --> 01:05:52.494  
대등으로 따질 수 있는  
게 몇 개 있어요.

01:05:52.594 --> 01:05:55.737  
그런데 그걸 내지는 않을  
거라고 저는 확신해요.

01:05:55.837 --> 01:06:01.284  
단, 반대로 애네가 무조건 대등이라고  
하면 오해하는 게 저런 거예요.

01:06:01.384 --> 01:06:03.449  
저건 종속으로 처리하셔야 돼요.

01:06:03.549 --> 01:06:07.983  
아까 전에 고는 나는 ~하고,

너는 ~한다 할 때 독립적이었죠.

01:06:08.083 --> 01:06:10.117  
이거는 손부터 씻고 밥을 먹어라.

01:06:10.217 --> 01:06:12.192  
뒤집어서 밥을 먹고 손을 씻어라.

01:06:12.292 --> 01:06:13.656  
완전 달라요.

01:06:13.756 --> 01:06:18.496  
즉, 이때의 고가 시간적 선후 관계를  
만들어주는 거라면, 이해되십니까?

01:06:18.596 --> 01:06:20.674  
시간적 선후 관계를  
만들어주는 거라면

01:06:20.774 --> 01:06:25.137  
그러면 애는 뭐로 처리되는 거냐면  
종속 처리가 된다는 거죠.

01:06:25.237 --> 01:06:26.105  
이 부분이요.

01:06:26.205 --> 01:06:30.956  
손부터 씻고 밥을 먹어라 이 부분에서  
애는 종속 관계를 만들어주는

01:06:31.056 --> 01:06:35.407  
종속적 연결어미가 돼요.

01:06:35.507 --> 01:06:38.585  
반드시 대등은 아닐 수  
있는 예외적인 겁니다.

01:06:38.685 --> 01:06:42.197  
밑에 있는 것의 예외는  
오히려 이걸 가꿈 나오는데

01:06:42.297 --> 01:06:44.242  
이거까지는 가기 쉽지  
않은데, 잘 보세요.

01:06:44.342 --> 01:06:46.836  
아까 전에 여기 있죠.

01:06:46.936 --> 01:06:48.811  
지금 지만이나 으나 있죠.

01:06:48.911 --> 01:06:50.726  
지만이나 으나, 이걸  
한번 생각해 봅시다.

01:06:50.826 --> 01:06:53.201  
지만, 으나.

01:06:53.301 --> 01:06:58.835  
~지만, ~으나 이런 게 나오면  
이거 지금 대등이었죠.

01:06:58.935 --> 01:07:02.076  
이거 지금 대등이었죠.

01:07:02.176 --> 01:07:03.758  
보겠습니다.

01:07:03.858 --> 01:07:08.085  
나는 노래를 못 부르는데,  
춤은 잘 춘다.

01:07:08.185 --> 01:07:11.546  
여기에서 는데라고 하는  
어미가 지금 보이네요.

01:07:11.646 --> 01:07:14.828  
부르다, 는데라는 어미가 보이네요.

01:07:14.928 --> 01:07:17.902  
는데는 지금 6가지의  
예를 들지 않았으니까

01:07:18.002 --> 01:07:20.537  
종속이겠네요라고 생각할  
수 있습니다.

01:07:20.637 --> 01:07:21.999  
종속인데요.

01:07:22.099 --> 01:07:26.858  
어느 때 종속이냐면 이런 경우예요.

01:07:35.516 --> 01:07:36.979  
이런 예문 보겠습니다.

01:07:37.079 --> 01:07:39.458  
내가 집을 나서는데 개가 짖었다.

01:07:39.558 --> 01:07:44.104  
내가 집을 나서는데 개가 짖었다 할  
때 이 는데가 똑같은 는데잖아요.

01:07:44.204 --> 01:07:45.274  
나왔잖아요.

01:07:45.374 --> 01:07:48.211  
애는 종속으로 볼 수 있어요.

01:07:48.311 --> 01:07:51.614  
내가 집을 나서다, 개가  
짖다라고 하는 두 개의 절이죠.

01:07:51.714 --> 01:07:55.535  
두 개의 절인데, 이것도 역시 느낌은  
개가 짖는 거랑 무슨 상관이에요.

01:07:55.635 --> 01:07:57.896  
심지어는 내가 집을  
나서는데 번개가 쳤다.

01:07:57.996 --> 01:07:59.190

내가 토르예요?

01:07:59.290 --> 01:08:00.958

왜, 뒷문장이 앞절에  
관계 없잖아요.

01:08:01.058 --> 01:08:02.272

이럴 수 있어요.

01:08:02.372 --> 01:08:06.823

그런데 여기에서의 는데 같은 경우에는  
전환을 나타내는 개념이거든요.

01:08:06.923 --> 01:08:10.345

그래서 전환을 나타내는 개념을  
중속으로 처리합니다.

01:08:10.445 --> 01:08:11.828

전환점, 전환점.

01:08:11.928 --> 01:08:15.168

여러분, 이 지만이나 으나를  
여기에다 넣어주면 어떨까요?

01:08:15.268 --> 01:08:18.142

내가 집을 나서지만 개가 짖었다.

01:08:18.242 --> 01:08:19.446

안 어울리죠?

01:08:19.546 --> 01:08:22.316

내가 집을 나서나 개가  
짖었다, 이상하죠.

01:08:22.416 --> 01:08:23.893

무슨 소리인지 알겠습니까?

01:08:23.993 --> 01:08:28.292

즉, 애는 역접의 는데가 아니라  
전환의 는데 느낌이 들잖아요.

01:08:28.392 --> 01:08:30.124

이거는 그러면 중속으로 처리해줘요.

01:08:30.224 --> 01:08:32.335

중속 맞습니다, 이러면.

01:08:32.435 --> 01:08:36.507

그런데 여기 부분을 지만이나  
으나를 넣었을 때 어때요?

01:08:36.607 --> 01:08:39.248

나는 노래를 못 부르지만  
춤을 잘 춘다.

01:08:39.348 --> 01:08:41.657

나는 노래를 못 부르나  
춤을 잘 춘다.

01:08:41.757 --> 01:08:43.036

완전 맞죠.

01:08:43.136 --> 01:08:47.255  
그러니까 아까 이게 역접의 개념을  
만들어주는 게 대등이라고 했으니

01:08:47.355 --> 01:08:52.044  
이게 역접의 기능을 갖고 있을  
때는 애가 대등 처리된다고요.

01:08:52.144 --> 01:08:55.989  
그래서 이런 건 또 일반적으로  
종속으로 여기는 는데

01:08:56.089 --> 01:09:02.023  
어미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문장에  
주어지면 대등으로 처리가 됩니다.

01:09:02.123 --> 01:09:05.640  
사실 대등이나 종속을 따지는  
게 그렇게 쉬운 문제는

01:09:05.740 --> 01:09:09.433  
아님에도 불구하고 일단 학교에서  
가르쳐주는 범위가 우선은 있어요.

01:09:09.533 --> 01:09:13.518  
그래서 우리가 적어도  
6가지는 꼭 외워주셔야지.

01:09:13.618 --> 01:09:16.627  
그리고 이중에서 고 같은  
게 시간적 선후 관계이면

01:09:16.727 --> 01:09:20.188  
그때는 종속으로 처리될 수도 있다라는  
것까지는 확인해주시면 됩니다.

01:09:20.288 --> 01:09:22.795  
뒤에 확인 테스트 문제가 있습니다.

01:09:22.895 --> 01:09:26.194  
여러분, 확인 테스트 문제 풀어보시고  
또 이제 정답을 올려주세요.

01:09:26.294 --> 01:09:30.284  
게시판에 올려주시면 선생님이 정답을  
다시 피드백해드릴 거예요.

01:09:30.384 --> 01:09:34.807  
그래서 공부한 거에 대해서  
학습 확인한다는 생각을 하시고

01:09:34.907 --> 01:09:36.027  
그렇게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.

01:09:36.127 --> 01:09:37.306  
수고하셨습니다.